朝鮮日報 夕刊
十七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人 方應謨
編輯人 金炯元

政黨側態度不變에 陸軍은依然不滿

軍民離間을間接的으로畫策

最惡의境遇도想像

杉山陸相

【東京電話同盟】陸軍은 停會後再開議會第一日인 十五日衆議院本會議를 通하야 政黨의 態度에對하야 停會後再開前과 何等本質的變化를 示하고잇지안흔것을 遺憾하엿는데 十六日第二日經驗에依하야 益益그感을기피하고잇는것은 注目된다 그리고 十五、十六兩日을 通하야 陸軍側의 바든 印象의重點은 政黨側은 依然히 反軍熱이 熾烈하야 實情을 알면서도 陸軍의 動向乃至意圖를 歪曲된 言辭로써 弄하야 間接的으로 軍民離間을 策하고잇스며 더욱陸海兩軍部의 離間策을 企圖하고잇는것가튼 形跡이잇는듯하다 十六日의 衆議院本會議에잇서서의事實로서는

一、二·二六事件의原因에對하야 同事件의發生은 秕政의結果라고 放言한現役軍人이잇는것가튼데이는 甚히 遺憾이다 同事件의責任은外部的으로는 全然責任이업고 全部陸軍의責任이라고 獨斷한것

一、軍人의 政治干與問題에 關하야는 歷代陸相이 充分說明하엿슴에 不拘하고 依然 勅諭陸軍刑法軍隊內務書等을引用하야 從來와가티 故意로 千篇一律의 毒舌을 弄한것

一、軍部大臣의 政治에 對한發言에 對하야 論難하고 軍部大臣의 國務大臣인 立場을 否定한것

一、軍이要望하는 廣義國防을 揶揄와가튼 言辭를行한것

一、陸軍의 今日態度로써 國民의 怨府로된것이라고 放言한것

一、軍部大臣의 現役制復活로써 軍의將來政權을 左右할 企圖를가진것가티 誣告하야 高言한것

等은 적지안케 陸軍側을 刺戟한것이라고 推察된다 十六日 衆議院本會議散會後院內政府委員室에 杉山陸相以下首腦部가會合한것은 如上情勢에基한것인바 그結果아직 더情勢를 暫時 監視하기로하고 散會하엿는데 陸軍의 政黨側에對한 態度는一段硬化하여젓스며 따러서 政黨側의 態度가이대로 繼續된다면 最惡의 境遇까지 豫想될 形勢에 이르럿다 또 右情勢에 鑑하야 杉山陸相은 그結果如何에不拘하고 一層굿은 決意로써 그所信을 議會에表明할것이라는 希望이 一部部內에이러낫는데 이는相當히注目을要할바이다

實行意思업는豫算案 議會提出은違憲

豫算總會第一日論戰

【東京電話同盟】衆議院豫算總會第一日은 十七日午前十時二十分開會, 開會에압서서 閣僚全部가出席하고 委員도거의出席하엿는데 場所가 의지안니한때문인지 엄성한感이잇다

小山委員長 豫算案이 再提出되엇음을 述하고 開會를 宣言하고 다음委員會의 日程 分科의 區分、主査選定、審議順序等을諮한後

一、昭和十二年度歲入歲出總豫算案

一、同各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一、豫算外 國庫負擔으로될 契約을 一括하야 議題에供하고 繼續하야 結城藏相으로부터 別項과가티 修正豫算案의 說明이잇섯다 다음議事進行에 關聯하야中村三之丞氏(民政)가質問을試하야

中村氏

政府는 時間關係上 不得已前內閣이 提出한 豫算案을 그대로再提出하고 이에對하야 修正方針을 述하엿는데

一、政府는 此際를 一體로하고協贊을 求할생각인가

一、會計法第八條에基한 豫算의申請 各省豫定經費要求書를 今議會에 提出할생각인가

고質問하고 또木村正義氏(政友)가重要問題에 對하야

一、將來實行할意思가업는 豫算案을提出함에對하야 議院法第六十四條第六十五條 會計法第八條의手續을 終了할생각을가젓는가

一、歲出豫算案修正에 對하야는 形式만이라도 我等은 아직政府의意思를 認定할수업다고 思하는데 如何

一、會計法第八條에基한 豫算明細書를 提出하는것은 어느때쯤될 豫定인가

龜井貫一郎氏(社大) 技術的으로 困難한가 或은時日의餘裕가업는가 明白히하기바란다

齋藤隆夫氏(民政) 豫算實行은 年度內에 實行한다는 前提下에 豫算을 作成하지아니하면 아니된다고생각하는데 明年度以後에 實行할것이라면 繼續費에 作成하는것이 조흘줄아는데 如何

結城藏相

一、豫算再編成의 餘裕가 업섯다

一、實行留保額中에는 修正案에 編入할것과 編入치안흘것과를 包含하고잇다

一、修正案은 可及的 分科會에는 마추도록하고저하나 時局이 重大한 此際이라 廣義로 解釋하여주기바란다

一、歲入豫算案은 增稅方法을 提出하엿스므로 諒解하여주기바란다

다시 補足的으로 說明하기 爲하야

賀屋大藏次官

現內閣이 提出한 豫算案은 形式上提出한것인바 修正案을 提出할 境遇에는 添附書를 提出하고저 생각한다。先例에 徵하면 必要치안흘지도 모르나 提出할생각이다。

會計法上手續으로서는今日修正案이 完備된것이아니므로歲出에對하야는勿論 歲入에잇서서도 今後그手續을取할豫定이다 時間의餘裕 印刷技術의 諸點에對하야는不便을感하고잇스나 今日은辨速主義에依할밧게업다고 思한다 豫算의實行保留는 勿論違令이나 先例로서 大正二年에 이러한일이잇섯다

齋藤隆夫氏 大正二年에 先例가잇다고하나 그것이 憲法에 違反된일이냐 아니냐고 하는데如何

賀屋次官 答辯을 하기어려우나 先例에依한것이아니라고 하면 先例에依한것이다 ... 志賀和多利氏(政友)가 法制局長官의 答辯을 求하엿슴으로 川越長官은 右答하면서 先例는 異例이나 憲法違反은아니다

川越法制局長官 起立하야 答辯하고 뒤이어

野中徹也氏(國同) 政府는 修正案을 提出한다고 하는데 境遇에 따러서는 審議期間을 延長하는것이어떠한가

志賀和多利氏(政友)가 地方財政交付金을 引例하야 豫算修正手續을 未了하매

川越長官 豫算審議期間을 延長함에 對하야는 政府案을 今議會에 提出할지 그與否는 目下考慮中이다

賀屋次官 交付金豫算에 對하야 提出한것과 修正하야 再提案한것과 性質이 判異한것이다

工藤鐵男氏(民政)憲法違反問題는 重要한問題임으로 今日은 이 程度로하는것이如何하냐고提議하고

小山委員長 委員諸君에잇서서도 더욱硏究한後 다시 審議하기를바란다고 述하고 散會하야 坂東幸太郞(民政)木村正義(政友)平野光三郞(第二控室)野中徹也(國同)由谷義治(東方)杉山元治郞(社大)等諸氏로부터 參考資料의 要求가잇슨後 同十一時五十六分 散會하엿다

實行豫算內容의 結城藏相說明要旨

【東京電話同盟】結城藏相은 十七日衆議院豫算總會劈頭 昭和十二年度實際豫算內容及 編成手續問題에關하야 說明을行하엿는데 그要旨는左와如하다

昭和十二年度歲入歲出의總豫算中 豫算修正을할수잇는데對하야는 準備가되는대로 可及的速히修正手續을 取하고저생각한다 只今政府가 企圖하고잇는 變更內容에對하야 그大要를말하면

一、議會에提案한 昭和十二年度總豫算金額은 歲入歲出이모다 三十億三千八百五十萬圓이엿섯는데 其中歲出에잇서서는 二億六千九百二十餘萬圓을 使用保留할생각이오 또 歲入에잇서서도 前內閣의 計畫에基한 稅制改革及 關稅制度改革에對하야 더욱이愼重히 考究하기로하고 爲先 暫定的計畫에 依하엿기때문에 相當한 金額을減少하게되엿다 따러서 昭和十二年度 實際豫算金額은 歲入歲出이 모도 二十七億六千九百三十萬圓으로되여 前年度實行豫算에比하야 歲入에잇서 四億六千三百七十萬圓、歲出에잇서 四億五千七百八十餘萬圓의 增加를보게되엿다

一、歲入

普通歲入은 二十億四千三百十萬圓이엿섯는데 이를只今提案한 豫算金額에比하면 一億九千三百餘萬圓을 減少하게될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前年度實行豫算에 比較하면 四億四千百三十餘萬圓의 增加가되는셈인데 이增加는 主로 臨時租稅增徵 新稅創設其他 增收計畫에 基한것이다 右增收計畫內譯은大體臨時租稅增徵及新稅創設에依한 增加二億六千九百五十餘萬圓 製造煙草賣渡價格의改訂에依한 增加二千五百四十餘萬圓 一般財源繰入特別會計로부터의 合計三億六千二百九十餘萬圓 其他關稅改正等에依한 增減二千一百五十餘萬圓이다

右臨時租稅增徵計畫은 所得稅一億六千三百[illegible] 稅三百九十七十餘萬圓 資本利子稅 一千三百七十餘萬圓 相續稅[illegible] 六十餘萬圓 酒稅一千八百十餘萬圓 砂糖消費稅 七百四十餘萬圓 取引所稅 一千六百餘萬圓 臨時利得稅 五百三十餘萬圓 合計二億三千[illegible]萬圓을 增加하게되엿다 또 新稅創設은 法人資本利子稅 一千五百四十萬圓 外貨債特別稅 百七十萬圓 揮發油稅 一千四百九十餘萬圓 有價證券移轉稅(印紙收益의分을包含함) 六百餘萬圓 合計三千九百二十餘萬圓이다 製造煙草賣渡價格改訂은 前內閣의 計畫대로 繼續하야 이를實施하기로하엿다

또 앞을稅制制度는 [illegible] 實施하기로하고 一般財源繰入은 [illegible] 會計로부터의 一般財源繰入에對하야도 大體 前內閣의 計畫을 踏襲하기로하엿는데 [illegible]

一、歲出

歲出에잇서서는 最近物價의騰貴情勢에鑑하야 政府의物資需要의增加를 抑制하는同時에 이에伴한 民間物資需要도 緩和하는等 主旨에依하야 議會에提案한 歲出豫算의金額에對하야 二億六千九百二十餘萬圓의 使用을保留하고저한다 [illegible] 勿論年度內의 豫算을 使用치안는다는것을意味하는것인바 그方法으로서 或은事業을中止하고 金額을削減하며 或은事業을 後年度에猶豫하는等 諸方法에依한것이다 豫算修正이可能한 部分에對하야는 修正手續을할생각이다 또 右歲出豫算의保留額을 決定함에 當하야는 國防充實 産業振興 [illegible] 右에依하야

[illegible] 各省別의保留金額의 總額을 말하면 [illegible] 外務省所管 二百六十餘萬圓、內務省所管 一億六千二百餘萬圓、大藏省所管 一千五百七十萬圓 陸軍省所管 一千三百萬圓 海軍省所管 二千三百萬圓 司法省所管 六十餘萬圓 文部省所管 百七十餘萬圓 農林省所管 一千八十餘萬圓 商工省所管 一千五百五十餘萬圓 遞信省所管 二百九十餘萬圓 拓務省所管 七十萬圓이다

又特別會計에잇서서도 相當額의歲出을保留하는同時에 特別會計[illegible]

[illegible] 特別會計 四十餘萬圓 帝國鐵道特別會計 十萬餘圓 通信事業特別會計 三百卅萬圓 [illegible] 千七百餘萬圓이다

最後로 昭和十一年度에잇서 歲出財源에充當하기爲하야發行하는 公債額은 實際豫算에잇서서는 一般會計에잇서 七億二千六百二十餘萬圓 特別會計에잇서朝鮮總督府特別會計六千五百餘萬圓 帝國鐵道特別會計二千二百萬圓 通信事業特別會計 一億四千三百餘萬圓 合計 [illegible] 각會計에잇서 入億六千九百二十餘萬圓이되여 提案豫算額에 比하야 一般特別會計에잇서서 七千七百[illegible] 特別會計 七百萬圓 合計 一千三百[illegible] 百餘萬圓 一般特別各會計의總計 [illegible] 에잇서 入千八百十餘萬圓의 減少될것이다 事情을 [illegible] 審議에協力하기를 切望하는바이다 (寫眞은 結城藏相)

代行機關問題로 政友黨內紛糾豫想

【東京電話同盟】鈴木總裁의 辭意表明을 契機로하야 善後對策을中心으로 各種工作이 頻繁히 行하고잇는데 黨內革新派는 卽時代行機關設置를 要望하고 今議會에 現幹部派의 넘아옷을實現하고저 猛烈한 潛行運動을開始하고잇다 이에對하야 鳩山氏를 中心으로한 鈴木總裁與邊에서는 代行機關을 設置함은 鈴木總裁의 留任을 前提로한것이라 見解를가지고잇다 卽 政友會의 黨則中에는 黨에는반듯이 總裁를 두기로되여잇고 總裁는 會務의 必要에 應하야 臨時機關을 設置할수잇다는 規定이잇다 따러서 只今代行機關을 設置하드라도 結局 次期總裁決定까지의 極히 暫定的인것을 免치못할것이며 또 今議會도 開會中이므로 結局現在의 總務를 中心으로 現幹部全部가 共同으로 對處하여 가지아니하면 아니된다고한다 따러서 革新派의 主張과 이點正面으로 衝突의危機가包藏되여잇는바 革新派는 黨則을 改正하던지 臨時이를 無視하던지라도 卽時代行機關設置를 主張하며 境遇에따러서는 黨의分裂을賭하더라도 마는하자는 氣勢를 示하고잇스므로 黨內는 當分代行機關問題를 中心으로 猛烈한 紛亂을 豫想케되엿다 따러서如何한 黨情의 歸趨가 豫測되기까지에는 相當한 時日을 要할 박게업는 情勢에잇서 結局代行機關이 設置되던 或은안되던間 總裁問題의 解決은 迂餘曲折을 經由하야 鈴木總裁의 決定에 依하야 歎員을 補充함을 得할의 一項만으로 改正할것이 認定되어 此後는 亦是 相當한 時期가 되어야 정리되리라 보는 ...

兵役法施行令中 一部改正

【東京電話同盟】急速을 要하는 陸軍軍備擴充과 時局의 趨勢에 鑑하야 陸軍에서는 今回兵役法施行法의 一部를 改正할 必要를 認定하고 兵役施行令中一部改正에 關한件을 閣議에 附議하야 決定함에 仰하야 公布하기로되엿다 改正要點은 左와如하다

一、陸軍兵、官等表의 改正에 伴하야 兵役施行中關係字句의 修正

二、現役兵에 適한者는 只今까지 身長一、五五米以上인것을 五糎引下하야 一、五〇米로하고 兵役에適合치못한者를一、五〇米未滿으로 하엿든것을一、四五米未滿으로함

三、現役兵及 第一補充兵의 採用順序를 身長一、六五米以上이든것을 一、六〇米以上으로 改正함

四、現役兵의 補缺徵集에 對하여는 只今까지 複雜한 規定이잇섯든것을 軍의「臨時로 現役兵中 多數의 缺員을 生할 境遇에는 陸軍大臣의 決定에 依하야 徵集을 行할수잇다」고 改正하야 ...

豫算總會의 政友會質問陣

【東京電話同盟】政友會에서는 十五日衆議院本會議散會後 芝三條亭에 豫算委員과 院內外總務聯合協議會를 열고 豫算總會에잇서서의 質問陣을 決定하엿는데 그 [illegible] 은 左와 如하다

一、質問者及分擔은 左와 如히 實施할것

大口氏 財政經濟事業算一般

蔵田氏 外交

高橋 藤原兩氏 産業

生田氏 農村

名川 牧野 立川各氏 綱紀問題

加藤(鐐)氏 鐵鋼問題

또 電力稅制整理地方交付金問題에 對하여도 意見交換을 行하엿다

政友會內情複雜

【東京電話同盟】鈴木總裁의 辭意表明에 對하야는 十六日顧問總裁聯合會에서 總裁의 辭意를 承認할 擧로 議論하야 幹部가 責任지고 善後處理에 關한 意見을 聽取한後 其뜻을 決定하기로 後指處를 決定하기로 安藤幹事長은 十六日午後二時 鈴木總裁를 九段私邸에 ...

陸軍首腦 對議會策協議

【東京電話同盟】十六日本會議散會後杉山陸相 梅津次官以下陸軍首腦部는 院內政府委員室에 參集議會의 情勢에對하야 種種意見交換을 行하고 다시今後情勢의推移에 深甚한 注意를 하기로하고 午後七時頃散會하엿다

郵料金引上案 議會提出決定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十六日午後零時半 院內에 閣議를 열고 郵便法中改正法律案(郵便料金引上에關한것)의 議會提出件을 決定하고 衆議院에 提出手續을 取하엿다 그要項은 左와如하다

一、郵便料金의改正

現行郵便料金은 明治三十二年乃至三十二年間에 制定되어 其來年을 經由하기 四十年의 오랜동안에 亘하야 今日에 이르럿는데 日本財政의 現狀은 通信事業特別會計로부터 一般會計에 多額의 納付金을 하지아니하면 아니되는 狀況에잇스므로 이에 郵便料金引上을 行하기로 되엿다

料金改正內容은 如左하다

第一種郵便物 重量二十瓦又는端數마다 四錢

第二種郵便葉書 通常葉書二錢

第三種 定期刊行物 每月一回以上刊行하는定期刊行物 重量六十瓦又는端數마다五厘

第四種 書籍、印刷物、商品見本及業務用書類 重量百二十瓦又는端數마다三錢

第五種 農産物種子 重量百二十瓦又는端數마다一錢

二、國際郵便料金의 擴大 從來는 國際條約에依하야 郵便料金을 決定하여 現金을 交付하는 ...

三、滿洲國政府發行의 郵便切手類의 保護 從來의 規定에依하면 外國政府가 發行하는 郵便切手類의 保護는 萬國郵便聯合條約에 加入한 國家의 發行에 限한다 따러서 滿洲國政府發行의 것은 이 郵便聯合條約에 加入한 國家로 取扱하지못하는바 今回이를 右條約에 加入한 國家의 發行에 準하야 이를 保護하도록 改正하고저한것이다

南總督湖南地方巡視 明十八日京城出發

南總督은 湖南地方初回巡視次 明十八日午前七時五十分京城驛發列車로 藤村總督秘書官、西岡地方課長、田中通譯官을 帶同하고 濟州에 向할터인데 同地로부터 大田、裡里、全州、麗水、光州、木浦、群山、長項을 經由하야 忠南北、全南北四道를 視察한後 來二十五日夕陽 京城에 歸任할 豫定이다

(左續) ... 又는 失策된 경우에 總裁를 任命하여야 ... 總務는 黨의 實力者 ...

辭令

京城覆審法院判事 總督府判事 小松博美

補京城覆審法院部長

大邱覆審法院判事 總督府判事 松本茂

補平壤覆審法院部長

補京城覆審法院部長 高等法院判事 總督府判事 五井節藏

補大邱覆審法院部長 平壤覆審法院部長 總督府判事

補高等法院判事 總督府判事 鐵一以

英、五個年計畫 再軍備斷行着手

【倫敦十六日發同盟】英國政府는 國際情勢의 緊迫에鑑하야 四億磅을限度로한 國防公債를 發行하기로 決定하엿는데 右公債其他財源을傾注하야 今後五個年間에 擴大한 再軍備計畫을 遂行할것을 十六日 白書로써 公表하엿다 再軍備計畫에 計上된 豫算은無慮十五億磅 邦貨에換算하면 約二百五十億의 巨額에達하는데 英國政府는 以上巨費를 投하야 陸海空三軍에 亘한 大英帝國國防의 完璧을期할뿐만아니라 將來戰爭은 國力의 諸元을 總動員한抗爭이 되리라는 想定下에 國防上必要한 經濟施設의 整備充實에 邁進할 方針이라한다 白書의內容은 如左하다

一、英國政府는 一九四二年三月三十一日까지에 國防費로서 十五億磅을 支出한다

一、右金額은 大英帝國國防을 爲할뿐만아니라 國防上必要한 各種廣汎한 經濟的施設을爲하야 支出할것이다

一、國防計畫에는 融通性을附與하야 將來情勢의發展에 照應하야 適宜修正할것이다 計畫을遂行하기爲하야 政府는 四億磅을 限度로한 國防公債를發行하고

一部를 公募한다

海軍은 一九三七—八兩年度에 主力艦三隻巡洋艦七隻航空母艦二隻을建造하고 着手하고 다시 空軍을擴張하야 海軍力의補强을圖할것

陸軍、步兵四個大隊戰車二個大隊式種의 新補助部隊를 增設하는同時에 急速히 軍의機械化를實現할것

空軍 根據地增設、空軍將兵養成學校 七十五校를 新設하고 若干은 勝敗에設置함 旣設한學校는 더욱擴大强化함

産業動員計畫 國防計畫遂行을爲하야 産業動員武器彈藥其他모든軍需品의 蓄積을圖하며 火藥彈藥工場도 建設한다

主力艦二隻建造着手

【倫敦十七日發同盟】英政府는海軍無條約狀態에 對應하야 이미 各八百萬磅의巨費를投하야 主力艦五世치조及프린·어브·웰스二隻建造에 着手하엿는데 다시海軍軍備五個年計畫에基하야 一九三七年度에잇서 主力艦三隻巡洋艦七隻을 建造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런데또航空母艦二隻도一九三七年度建艦計畫에 計上될것으로推測된다 英政府의 海軍費는一九三三年乃至三四年度에잇서 一千二百萬磅이던것이 一九三六年度에는 五千萬磅에 增加하엿는데 一九三七年度에는 또한顯著한 增大를加할것으로 豫想된다

營林署長會議 指示注意事項

十六日부터 열린營林署長會議에잇서 指示注意事項은如左하다

▲指示事項

一、會計事務의 刷新에關한件

二、司法警察官吏의職務遂行상에 의指命及그指導監督에關한件

三、林木의 集約利用에 關한件

四、官行事業에잇서서 事故防止에 關한件

五、林産物의 處理方針에關한件

六、鐵道枕木材料의供給에關한件

七、造林事業의成績改善에關한件

▲注意事項

一、統計書類의 提出에關한件

二、官行斫伐에關한件

三、林産物處理에關한件

四、造林에關한件

人事·集會

▲金炯元氏(本社編輯局長)慶北地方出張中 十七日朝 京城驛着列車로歸任

八面鋒

◇京城府內 普校志願者 二千餘名中『兩班』이 九十九%라고。

◇官吏가 되엇스니 兩班、公職者가 되엇스니 兩班、會社重役이 되엇스니 兩班、專門、大學을卒業햇스니 兩班、洋服을 입엇스니 兩班、士農工商의 階級이 廢止되엇스니 모다가 兩班일밧게。

◇所聞을 들으니정말『兩班』이 쫓發大發할 일이로군。

◇京城府當局者 이 身分欄을 設한것은 家庭關係를 보기위함이라고。

◇學務局에서는 今年부터 「釋奠」을 兩班만 入學시키고 常民은 안시킬 豫定이로군가。

◇學務局에서는 今年부터 釋奠祭享을 盛大하게 擧行한다고。

◇孔子님도 開化하시는셈。經學院、明倫學院、鄕校職員諸君은 一年 한차례식 坊坊谷谷에서 祭祀지내는 돈으로 普通學校나 더만히 세웟이 如何。

◇이것은 孔子님 思想에 違反되지안소?

◇軍部의 對政黨態度、아주도 不遜。좀더 刺戟하면 또다시 解散이 날듯。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劍十円

藥 卸問屋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南大門通二丁目 代 振替京城一六番 電話本局 四〇九.一〇六八 四〇九三.四八四
營業案內呈上進呈

信用잇는最高會社의大事業으로됩니다
조흔家庭工業
第一 日常生活의必需品을 自分이 製造하야...
第二 參十萬圓
資本 株式會社
內外貿易

有價證券 現物問屋
廣
大邱上町十一 電話一一九番

講習生募集
公認 新義州時計技術講習所
募集人員 五十名 開講三月一日
新義州府梅枝町八
規則請求次第送呈(要二錢切手)

中央保育學校生徒募集
▲募集人員 五十名 ▲願書提出 三月三十日限 別科 若干名
▲試驗科目 口頭試問、身體檢査 ▲試驗日 三月三十一日四月一日午前九時半
▲試驗場所 京城府西大門町本校 ▲詳細本校照會

甲種 崇仁商業學校生徒募集
一、第一學年約百名 一、出願期間 二月八日까지
一、試驗期間 三月十九日부터六日間 平壤府麻上里 (電話一三〇八番)

財團法人 協成實業學校 商工科生徒募集
▲商一年五十名、工一年二十五名 ▲出願三月廿五日迄 ▲試驗三月二十七日、八、九、三日間
(京城楽園洞)

小資本大成功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不景氣며르는經營無難한完全事業의內容案內書二錢切手添付請求次第進呈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京城蓬萊町一ノ一二八 榮信社工業所

感氣·熱氣를 마르는기침
鎭咳 祛痰
せきに コデチン
定價 卅錢·五十錢·一圓·二圓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神田·大阪道修町

朝鮮日報社密陽支局 電話一〇二番

죽은깨는 피부정기로
보기흉한 죽은깨는 피부정기로 완전히업서지고 다시 재발되지안으니 주저마시고쓰시요 약가 중정용 四圓、정중용 二圓、송료 三十五錢
發賣所 京城鍾路四丁目 私書函光化門局四八號 合資會社 日光堂藥品部

農林省副業課獎勵
軍手製造
專屬製造家募集!
十一年度高速度能率機
豐國軍手京城營業所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十九番地

病人の榮養に どりこの
美味で滋養 で體裁よく

清涼里는貨物驛化 京城驛은旅客專用

列車專用의操車場을新設

膨脹京城驛緩和策

길전(吉田)철도국장은 예산수정(豫算修正)과 의회(議會)관계로 십칠일오후『아까쯔끼』로 동경으로 건너갓는데 떠나기전에 기자에게 철도사업관계에 대하야 대략 다음과가티 이야기하엿다。

경성역은 현재 상당히 명창해젓스므로 청량리역(淸涼里驛)을 회물취급역(貨物取扱驛)으로하야 거치른화물은 전부거기서 취급하기로하고 또소화십이년도 예산으로 경성을 비롯하야 전조선에 조차장(操車場)다섯곳을 신설하기로 되엿스므로 경성역의혼잡은 전부경성조차장에 수용하게될터이고 그리고 경성역은순전히 려객취급역(旅客取扱驛)으로할터이다 그리되다면현재의 경성역만으로도 별로히군색하지안켓스므로 경성역은 개축하지안해도 조흘줄로생각한다

이번 내각에서 철도국 예산으로 팔십오만원이 삭감되엿스므로 철도개량공사는 자연히예정보다 연기될것도 잇게될터이다 그래서 이번에 건너가서이미제출안예산안을 좋수정해야하겟다

京城驛廣場에遺失한 유난히큰"튜렁크"

屍體나아닌가주춤주춤開封

意外에도現金과商品券

십칠일오후한시쯤에 본정서 경성역전파출소원이 십오일밤부터 경성역전광장에 노혀잇는 유난히큰『튜렁크』를 가저가는사람이 업슴으로 동파출소에가저다 두고 혹시시체나들지안헛나하며 주춤주춤열어 보앗는바 의외에도 그속에는 현금사십원상품권 삼십원 열쇠가 약십개기타조선부인용 화려한옷여러벌이『핸드빽』과가티 들어잇섯다는데 그이저버린사람이야말로 드물게볼만한 건망증환자라고하며 일장우슴판이 버려젓섯다한다

飮毒한두女子는 新町日昇樓의娼妓로

한女子의情死에한女子는同情

開城自殺未遂의後聞

【開城支局電話】 조간기보=십칠일 오전일곱시경 대화정 송경려관(松京旅館)에서 한남자와 두녀자가『칼모틴』을먹고 자살을 하랴하엿스나 남자는 분량이 적은관계인지 의식이 명확하고 두녀자만 혼수상태에 빠젓다 함은 기보와갓거니와 십칠일 아침에는 두녀자도 기적적으로 회생하야 세사람이모두 생명에는아모관계가업다한다

그리고 전기남자는 아직미혼한 경성전기회사의 차장(車掌)인것은 작일판명되엿거니와 두녀자의 신분도 마침내 판명되엿는데 그들은 모두 경성신정(新町)에잇는 일승루(日昇樓)의 창기로서 옥자(玉子)(二○)는 몸갑시 일천삼백원인데 약삼개월전부터 리원희(李元熙)와 정분이나서 장래를 맹세햇스나 정은깁고 돈은업서서 마침내죽엄으로써 모든것을 청산하기로 하엿다 그런데 옥자가 이러한 사정을한집내서 독가튼처지에서 고생하는 숙자(淑子)(一九)에게알렷드니 숙자도역시 몸갑일천칠백원을 걸머지고잇는 처지이라 그두남녀에게 동정하야 그와가티개성까지 가티가서『칼모틴』자살을 도모하엿든것이라한다 그런데 그세남녀는 모두의식이회복되엿슴으로 급보를밧고개성까지쫓처내려간 관계자들에게 끌려서 불원경성으로 다시오게되리라한다

工業校移轉에 全州市民反對

소화십이년도에 전주(全州)에 중학교가 신설되는것은 이미보도하엿거니와 이에따라서 전북도당국에서는 현재의 전주공업보습학교를 리리(裡里)로 이전시킬것은 명확한일임으로 전주주민들은 문제를삼고 십칠일전주상공회의소에서는 공업보습학교의 이전조지(阻止)를 총독부에 진정하여왓다 이문제에 대하야 부영(富永)학무국장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전북도당국의 사정으로 공업보습학교는 리리에 이전하는것이 타당한것이라면 필경이전하는수밧게 업슬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정식보고가업다 이문제는 도회(道會)의 결의로서 단행하게될것임으로 당국에서적극적으로 지시할수는 업는것이다 그러치만 이런하는것이 매우모순되는 일이라면 도당국에 주의하지안하면 안될일이다

三防事故當時 有功職員表彰

철도국에서는 지난달 십삼일밤에 경원선(京元線)삼방(三防)산골에서 발생한 렬차탈선 전복사고당시에 희생적으로 활동한 도영차장(稻永車掌)박(朴)고산역대무조역(高山驛代務助役)외 삼십일명에 대하야 근간에표창을 할터이라한다 전기 삼십이명은 사고가발생한 당시어두운밤에 눈보래치는 혹한을 무릅쓰고 자기들의 상처를 돌보지안코 어쩔줄을 몰르고잇는 승객들을 전부 무난히 구원해내고 도한복구공사에 착수하는등으로 잘처리하엿기때문에 그승객일반으로부터도 칭찬이만핫고 그뒤 철도국에서 조사한결과 전기재씨가 활동한공적을 알게되엿스므로 표창장과 상금을 주기로된것이라한다

朝共再建事件 李鎭一外三名出獄

한때는 조선천지를 진동케한 서대문경찰서 검거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사건의 관계자 리진일(李鎭一)리소진(李素進)심인택(沈仁澤)리상학(李相鶴)등네명은 수년동안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중이든바 십칠일아츰에 모다 만기출소하엿다 리진일은 부내성북정(城北町)리소진은부내종로오정목에 잇는 그의자택으로 돌아가서 조섭중이라한다

身元모를縊死屍 北阿峴町서發見

십칠일오전 일곱시경 시내북아현정(北阿峴町)공동묘지 송림속에 나히이십오세가량 되여보이는 청년이솔까지에 목을매고죽어잇는것을 때마침 그곳을지나가든 야경단원이 발견하고곳소관서대문서에 신고하야 왓스므로 곳서원이현장에 출동하야 조사한결과 자살에는 틀림업고 원인는알수업서서 지금그신원과 자살한원인을조사하는중이다

偽造貨幣또發見

十六日、京電電車課에서

偽造圓摘發에警察力總集中

십륙일 시내경성전기회사전차과(京電車課)에서 손님들에게 들어온돈가운데서 오십전짜리은전열네개와 십전짜리 백동전네게가 위조화폐(僞造貨幣)인것을발견하고 이를경기도형사과에보고하엿는데 형사과에서는 한동안 잠잠하든 위조화폐가 또다시 시내를 횡행하고잇는것은 그배후에 일대화폐위조단이 잠재하여잇는것으로노리고 시내각서에지령하야 그들의본거를적발하기위하야 지못 큰활동을개시하엿다

돈버리大王(?)賣藥商

마침내法廷鬪爭까지

所謂强壯劑『뉴토닉』販賣權을中心으로

製藥者와總販賣店主의係爭

이삼년전부터 조선에는 유명무명의 보재약、림질약、매독약등 매약(賣藥)을판매하는 상점이 마티비뒤의대소순가티나와서 개중에는 수십만원의 매약치부까지한 경영자가만허서 돈버리하려면 매약행상을하는것이 조타는말까지 떠돌게되엿는데 강장제(强壯劑)『뉴토닉』이라는 매약의판매권을 중간에두고 제약자와총판매점경영자가 법정에서로시비를 다투게되엿다

부내종로(鍾路)이정목팔십오번지 량상석(梁尙錫)씨는 부내죽첨정(竹添町)일정목 사십칠번지『기린당약방주인 윤원상(尹元相)씨를상대로 십칠일 경성지방법원민사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엿는데 소장내용을보면 피고윤원상씨는 작년사월부터 강장제『뉴토닉』이라는약을새로지어 팔기로되야『네오토닉』이라는 약과경쟁판매키 위하야약판매에 경험이만흔 원고와의론한결과 원고에게 일수판매권(一手販賣權)을 주어조선 일본내지일대에 이약을 선전판매키로계약되야 작년구월십일부터 원고는『뉴토닉』총대리점이라는 간판을걸고 신문 잡지등에광고를내며 선전『삐라』를각처에 배부하야 상당히활약을 하여오든중피고는 판매성적이 조흔것을보고 원고가 리를보게되는 중간수수료까지 자기가독점할목적으로처음계약에원고의 인정을밧지안코는 다른곳에 대리점(代理店)을 두지안키로되엿슴에 불구코 그는 작년십이월개에 부내산안(山岸)약방을 비롯하야 함흥(咸興)진남포(鎭南浦)겸이포(兼二浦)등지에 원고의승낙도업시 대리점을설치할뿐더러 피고는 십이월삼십일일부로 돌연원고의 총대리점계약을 해제하여버렷다 종래 대리점경영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약제사를두고 또점원을느리여 상점설비를 확장한외에 망고선전비를만히써서 정신적경제적 손해가만코 또계약을매질때에 위반하는경우에는 처음거래한때부터 매끗번거래까지의 거래액에 상당한 손해배상을하기로 되엿슨즉 피고는 리유업시 계약을위반하엿스니 계약대로작년사월부터 시월이십일까지의 거래액 륙천칠백사십이원오십전을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내게하여달라는것이다

春裝한靑年紳士

잡고보니前科六犯者

阿峴某富豪에는軍資金强請

십륙일오후네시쯤에 종로서 경관두명이 새구두를 신은 말쑥한 청년한명을 체포하여왓는데 그는용모로 보아도 보통범인이 아닌듯하야 일대긴장리에 동서에서는 취조중이라는바 그는원적을 부내사간정(司諫町)에두고 주소부정의 리효성(李孝成)(二六)으로 부내청엽정(靑葉町)에잇는 모로동자하숙소에서 행세를하고 이래 그대로 지나다가 그곳을 쫓겨나자 지난십오일에는 부내아현정(阿峴町)에잇는 모부호의집에 침입하야 저는내몽고(內蒙古)에서 모험면의 사명을맛고 조선에 드러오게되여 군자금을모집하니 돈을내노흐라고 엉터리업는 거짓말언으로 돈을강청한것을 동서원이탐지하고 체포한것이라는데 그는일즉부터 부랑배로시내 각처를배회하며 무전취식 금전강요 상습자로 전과륙범인것이 판명되엿스나 그의여죄를 매우추궁중이라한다

"팟윳"賭博團打盡

富豪妾、妓生母等九名을檢束

시내종로서 사법계에서는 십칠일새벽에 시내청진정(淸進町)이백팔십륙번지에서 인사소개업을하는 한승옥(韓承玉)의 집에서 기생어미와 부호의애첩이며 유한(有閑)마담들이 모히여도박을 하고잇는것을 탐지하고돌연이를습격하야팟윳을가지고 도박판을벌리고잇는현장에서 김인옥(金仁玉)(三一)등아홉명의 여자를일망타진하고 판돈사십팔원까지압수하여와서 방금그들유한매담과부호의애첩、기생어미등을모두류치식혀 노코 엄중문초중이다

검어도百萬圓

京畿道年産木炭

경기도내에는 매년 팔십만표(俵)의목탄(木炭)이산출되여 그가격이 약백만원에달하고잇는데 이와가티 다량으로산출되는 목탄이 대부분 경기도내에서 소비되고잇는 현상이나 최근시장에나오는 목탄은 그품질이 극히낫븐것이 만흘뿐더러 그가격이엄청나게 비싼것이 만흔점을 고려하야 경기도 산업과에서는 아직껏 목탄생산자의 임의요구에의하야 그품질검사를 해주어오던소극적태도를 버리고 십이년도부터는 전생산품을 모두검사하야 품질의향상과 가격의통제를하기로 결정하고 그검사원 여덟명을두어 도내전반을통하야 검사와 통제에적극적 노력을 개시하게되엿다고한다

第一次移民三千戶

間島省集團部落에收容

農耕에失期안토록 三月初엔輸送開始

"鮮滿拓殖"事業遂行第一步로

各道의移民募集成績良好

조선농민의만주이민은 그동안 허성(虛聲)만 노팟슬뿐이요 아직도자유이민(自由移民)을빼노코는 단체적으로실행치못하고 잇섯다 그는 새로 조선으로부터 이민하기전에 먼저자유이민으로 만주각지에 허터저잇는것을 적당한곳으로 집단시키기에 노력하고잇기때문이라한다 선만척식회사(鮮滿拓殖)에서는 사업수행의 제일보로 목하간도성안에 만주국에서 건설한 집단부락에 수용하는이민 삼천호를 남조선 중부조선 북조선각지방에서 모집하는중인데 지금까지 응모한것은 합계이천일백팔십오호로서 비교적 조흔성적을 보이고잇는데 각도별로보면 다음과갓다

▲咸北一二五戶 ▲咸南三三○戶 ▲江原六○○戶 ▲慶北四三○戶 ▲慶南二九○戶 ▲京畿一○○戶 ▲忠北三一○戶 合計二、一八五戶

그런데 이번에 모집을 마추면 오는 삼월초순경부터 수용을개시하야 농경기까지에는 이주한곳에 안정하도록 할예정이라한다

麻雀판에出入 外套만窃取

入質하다가發覺被捉

충남(忠南)출생으로 수개월전까지 부내에서 리발사로잇든 박덕규(朴德奎)(二七)는 그가 마작(麻雀)잘하는것을 기회로 지난 사일밤 부내앵정정(櫻井町)소화온천마작구락부(昭和溫泉麻雀俱樂部)에 차저온 목촌(木村)이라고하며 마작을하다가 자기외투미테 걸렷든 좌좌목(佐佐木)이라는사람의 겸정 라다 외투(時價八十圓)를 집어가지고 나왓는데 이가튼수단으로 전후세번 약이백여원어치를 훔처서 역시목촌이라든가 신전(神田)이란 이름으로 입질하려다가 십칠일 동대문서원에게 체포되엿다 한다

天竺國으로直航

印度갈컷타線釜山에寄航

四月부터每月一回

대판상선(大阪商船)에서는 일쪽부터 인도(印度)갈컷타항로의 부산기항(寄航)에대하야 연구중이든바 총독부로부터의 기한보조금이잇고 얼슴을 헤아리지안코 사월부터 매월일회식 기항하기로 결정하엿다 제일항으로『한루나二號』는 사월삼사일 부산에입항할예정으로 이항로의기항순서는 횡빈을기점으로하야 명고옥(名古屋)、대판(大阪)、신호(神戶)、문사(門司)、부산(釜山)、기륭(基隆)、향항(香港)、싱가포르、페라안때리、피난、란군、칼컷타등으로 이로써 조선과인도사이의 직항이 가능하게되엿다고한다

促進會解體뒤이어 協議會를또組織

實行委員五名을選擧코一任

그後의平壤三校後繼問題

【平壤】숭전、숭중、숭의삼학교후계촉진회(後繼促進會)에서는급기야『합동경영을지지하고 분리경영을반대한다 분리경영파의고집으로 세학교가폐교하는책임은 분리파재단이 당당할것』이라는 결의를 십오일총회에서 한채로 해체하고마럿다함은 기보와갓거니와 십륙일오후다섯시부터 부내대화정(大和町)홍종루(鴻鐘樓)에서는 평남유림련합회장 전덕룡(田德龍)씨외 숭전、숭중 대표구명이 회합하야 숭의삼교후계문제협의회(後繼問題協議會)를개최한후 경과에잇서서는 대체가촉진회때와 다른것이업스나 제이단계으로 후계문제를토의할필요가잇다하야 실행위원으로 리기찬(李基燦)김능수(金能秀)박용근(朴鏞根)채수헌(蔡洙憲)김필응(金弼應)등 오씨를선거하고 폐회햇는데 우의 실행위원오씨의 금후활약이주목된다

이날출석햇든이는다음과갓다

▲金永弼 ▲鄭世胤 ▲田德龍 ▲金廷柱 ▲盧光淵 孫壽卿▲ 朴鏞茂 ▲金晋燁 ▲金弼應▲ 李基燦

뿔문博士歡迎會

【全州】남장로교 경영학교의존폐문제에 최후적선언을 나리며 그외 중대한사명을띄고 조선에 온 뿔문박사는 지난십오일전주에 도착하엿다함은 본보에 기보하엿거니와 십오일오후네시반경각전에 전주역두에는 전주신흥학교 전교생을필두로 수천명이 출영하엿스며 당일오후칠시반부터 신흥학교동창회 주최와 본보 전주지국후원으로 환영회를 개최하엿는바 정각전부터 모혀온 청중이삼천명이상으로 초만원을 이루워 설레는 희꿋을 맛추웟다하며 십칠일오후두시에는『한남형회』부인대표 직원회 학생대표 교원대표 졸업생대표』의 여섯단체가 모혀 뿔문박사 환영회를 개최하고금후 학교문제에 대하야 선처하야 결정하여달라는 간절한 의사를 표시하엿다는데 사만의전주부민은 초조히 금후해결을기대리는중이라한다

天氣豫報

概況 七七六粍의高氣壓은蒙古로부터 滿洲로퍼저서이로부터氣壓은朝鮮을거처서 日本內地方面으로 나저저잇다 滿洲朝鮮은晴 南朝鮮은曇 表日本은晴 琉球諸島는雨 裏日本은曇、치위는一般的으로풀렷다

豫報 今夜는晴一時曇 明日도갓다

昨日最高 ○度九
同 最低 零下七度九
今朝最低 零下七度六
今日正午 零下三度三

女子千六百繼走 氷上日滿新記錄

全滿洲都市對抗

抗氷上競技大會는 十四日新京西公園링크에서擧行한바 女子스피드千六百米繼走에서는 一、二着이 모두日本及滿洲新記錄을 作成하엿다

▲千六百米繼走=1奉天팀(今村、村山、江島、木谷)二分五十九秒三 2新京팀三分三秒三(以上全部日本及滿洲新記錄)

世界스키ー選手權

滝젬프에諸威優勝

【샤모니ー十四日發同盟】一九三七年度世界스키ー選手權大會 第三日은 十四日繼續하야 當地에서 가장人氣를이끄는 純젬프競技를行한바 가르밋쉬·올림픽大會의覇者빌겔·루드(諸威)選手가 一、二回에모두훌륭한폼을보이고優勝하엿스며 二、三等에도諸威의『아벨스』와『소릿드』選手가入賞하야 諸威는 飛躍王國의 實力을 充分히發揮하엿다

1빌겔·루ー드(諸威)六○米五○、六五米五○、二三三點八○ 2아벨스(諸威)六○米、六五米 二三一點八 3소릿드(諸威)六一米五○、六○米、二二五點七

女子背泳世界新記錄

【코펜하겐十四日發同盟】十四日當地풀에서 擧行된 水泳競技會女子二百米背泳에 丁抹國의 新進『라긔·웨ー가ー』孃은 二分四十一秒三의 驚異的世界新記錄을 作成하야 優勝하엿다 그리하야 지난 二月二日 波蘭의『센프』孃이 지은 世界新記錄二分四十四秒六을 다시三秒三을 短縮하야 버렷다

拳鬪大會延期

아마拳鬪協會主催의

來四月廿三、四兩日로

旣報=新創立된 朝鮮아마튜어拳鬪協會에서는 其첫事業으로第一回全朝鮮아마튜어拳鬪選手權大會를 來廿七、八兩日間午後七時부터 本社大講堂特設링에서 開催할 豫定이엿스나 開協會로부터 諸團體의 諸般關係를 參酌하야 大會開催期日을 四月二十三、四兩日로 延期하엿다고한다

母性에靈藥
젖잘나는약
라구도민
適應症 乳房發育不全 乳汁缺乏 熱病 貧血 萎縮 虛弱等의原因으로 乳汁이缺乏한때에偉效 又 船中 補藥
定價 壹圓 六圓
國際新藥研究所
振替京城二二六九 電光二六九八番

로이도동정
京城府臥龍町一一四
サイワイ商會
京城出張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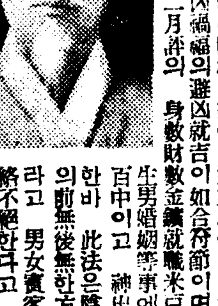
一、달기편리하고……비단동정과가티 풀노서 조희를 배합하야 인두질을할필요업시 그대로달수잇다
一、꾸겨지지아니하고……아모리 오래동안사용해도 절대로꾸겨지지아니하고 항상반듯하고 팽팽하다
一、모양조코갑싸고……백설가티 희고 꾸겨지지아니하니 아모리 옷맵시가업는사람도『로이도동정』을 달아입으면 제비가티 어엽버지는데 갑스로말하면 비단동정하나갑도못되여 농촌이나 도회나 남자나 녀자를물론하고 경제적임은 말할것도업다
一、백결미려하고……색이백설가티 희며 적합한탄력이잇서 아름답기 짝이업다
二、때가뭇지아니하고……백색에는 때가 잘뭇으나『로이도동정』은 백설가티 희여도 절대로 때가뭇지안는다
一、오래동안쓸수잇고……때가 뭇지 아니하며 꾸겨지지 아니하니 일년동안을 계속해 달아입어도 언제든지 희게보인다

祥의衣服와 時代의古今을莫論하고 누구든지人類生活에 가장必要한것은 衣食住라고하게되며 그中에서도 衣를 第一에 꼽게되는것은 衣服이 우리生活에 얼마나 必要하다는 것을알것입니다 그러면 우리朝鮮衣服의 美를代表하고잇는 것은 무엇이냐하면『동정』이라하겟스며『동정』의 美는 그色이 白潔美麗한데잇고 白潔美麗함에는 때가 뭇지안케 하는데잇겟습니다 이必要下에 多年間研究에硏究를 거듭한 結果 經濟無比며 輕便白而ー쎈드인『로이도동정』이 新發明되엿스니 그長點을略擧하면 如左합니다

代理店特約店募集
地方別一手販賣代理店特約店을募集하오니 尙今特約店未設地方의 有意諸氏는 一切本商會京城出張所로 問議하옵소서
釜山府草梁
サイワイ商會 白

朝鮮文學全集古代篇
第四回配本
小說集 2
中明均 金台俊 編
第六卷
定價一圓 送料八錢
京城府安國町一五三 中央印書館 振京城一二七八番 電光二五九五番
旣刊 小說集全 歌詞集上 時調集一
各定價壹圓 送料八錢
古典吟味의決定的豪華版!
우리는古典을알며써그때生活感情을우리의새로운 呼吸으로 反省하자!
이小說集은 巷間에異本들이 만흔것을 李學者들이 責任지고 考證한 眞本과 定本의 改版인것이다
童容傳 劉忠烈傳 洪吉童傳 彰善感義錄 朴氏傳으로 作品의 細部에詳한說明이 잇다

京城鍾路パコダ公園正門越便
医學博士 金東益內科
電光二七五三(船中ナヤ館影)

觀相大方家

松堂 京城府淸進町五十一番地(鐘路尋常小學校前家)
四柱流年五圓 一年評一圓 一生總論二圓 科金은二圓以上

歐米各國世界第一特効藥完備
內科 光線科 米國生物醫學士
韓箕道醫院
京城鍾路パコダ公園正門東側 電話光化門 二一八七番

理化學用白金器具
金.銀.白金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림질 대하증엔

구로벨 이제일이요

超스피ㅣ드 空中征服(공중정복) 時代(시대)다 어서진은 비행기의가는 길을잘살펴서 고장업시 속력을내는 광경이오 병에도 위선약을선택하야 치료하여야합니다 림질약도하도만흐니다른약에속지마시고 제일속하고안전하고 신용잇는 약구로벨을쓰시오

효력최극상 최특등 전세계에서 제일유명한 독일약(헤루미도ㅣ루)만 도히 들엇고 세계적 대신 발명한 약제도 전보담 만히 더느엇답니다

◇남녀만급성림질, 부인적백대하증, 남녀냉증, 오즘소태, 월경 고르지 못한데며 하혈(下血) 등으로 별치료를하야 보고별별약을써도 무효하야 돈만허비하고 근치안되며 고통하는분은 이것저것주저할것업시 안심하고 제일먼저 신발명한 (kuroher)구로벨을쓰시오 구로벨은 틀임업는약이다 이러한 자신(自信)을 어든결과환자의 안섬과 신용을 엇기위하야 장담하오니 안심하시고쓰시오

구로벨의특장

一、약효가강렬하야 여러해된 고질특히 재발한만성림질과 대하증은 물론 림독성으로된방광염고환염 (산증)섭호선염자궁내막염란소염라팔관뇨두협착등에속효

二、이약은다른약과가티 지리하게오래동안먹고만급성간에오래된고질 만성증이라도 일주일내로효력을보고

三、림질약치고 위장이안상하는약이업는데 구로벨만은조곰도안상하고 다른부작용이조금도업슴으로 위장이약한분이먹어도 트림하나안난다는 말은효험본여러분의찬송하는것이오 그런데이약이속한리유는다른약을오래쓰게되여 그동안조섭이곤난한소치엿다

【약갑】 완고악성에구원, 만성그타제증에오원 대하증, 냉병기타부인병에오원, 급성과부인오즘소태에삼원, 지방송료선금십오전대금인환은삼십오전 (오원이나삼원이나다일주일분)

만일 무슨 약이든지 이삼일쓰시와 특이성의체질(特異性體質)노병에안맛거나광고 와틀리는 점이잇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특효가업거든 약을곳보내시요 청구하시는대로하여드리겟습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五) 제일큰서양돌집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그전신성당약품부)
振替京城四九五〇番 電話光化門三三四番

속히구로벨을쓰시고 이런옥동자를나십시오

◎림질약은
신성당이독판치다고그전
부터입달넌사람이면다ㅣ
말한다하오(다른약은안그런가)
◎하는수업다결국잘나는
약이두판칠수밧게
◎신성에변된고질이나엇다
는감사장이업스면절대로
신용마시오 갑싸고화리만코경품
만히주는약은결국갑싼갈치자반이지오
◎당신은하도만히감사장업는
약에속아서이감사장도밋지안켓지오
◎그러나이감사장을위조하면(僞造)
죽거짓말로사미면사군서위조라고
경찰에서야단합니다
그러니이감사장만은절대
로밋어주시오

이이는엇지하야 장님이되엿나 림질균이눈에드러가면눈이멀고 태중에림질대하증에걸니면눈먼아희를난다

000954

삼년된 림질이 [illegible] — [illegible] 朴[illegible]錫

수년된 림질이 완쾌되여 신성당약이아니라면 다신용하게되 — 仁川龍岡町六六 全載昇

고생에고생하던 림질이 확실한갑에 다나엇다 — 咸興府榮[illegible]市場通 北鮮商會 林喆守

사오개월 고생한 림질이 다나아서 친지에게광고 — 江原道江陵大正町一五七 平江商店主 梁才勇

수년된 림질이 일주분으로 즉효보와 극력선전중 — 滿洲安東驛七番通八ノ二 孫金達

수년전 만성림질 [illegible] — 馬山府元町一六五 水月堂製藥所 李守哲

작년에는 체증에 [illegible] 림질을구로벨노 [illegible] 근치 — 慶南咸陽郡咸陽面下洞 閔泳圭

약방에서 조타는약으로 안낫던림질이완치 — 黃海道甕津郡北面花山中里 崔鎬壽

수백종약으로 안낫던 완고한림질이 [illegible] — 群山府榮町一一八 鉄力商店 金洙泰

귀사 월보독자소개로 칠개년된림질이 [illegible] — 忠南保寧郡熊川面獨堂里 金淳[illegible]

십삼년된림질이 오원어치로 완치돼 — 慶北達城郡玄風面[illegible]洞 金炳萬 李源明

오륙년된대하증이 일주일분에낫고임신삼개월 — 利川郡長湖院面[illegible]里 柳圖秀

자기나흔 효험으로 림질환자마다 권해 — 江界郡西面登公洞九九 [illegible] 金丙柱

두제중 한제로 림질이나어 한제는반송 — 慶北線安東驛 誠進社主 孫慶壽

림질을 근치하고 보약에대한설명서를 도청구 — 元山府中里四洞二九 朴善柱

림질을 고치고 귀사의 번영을늘축원 — 洪川邑希望里 奭泰一

수백원업생 삼년된림질을 일주분으로곳치고 귀사특약점이될예정 — 龍川郡內中面所前 龍産業社 李亨根

림질환자에게 시용한비 [illegible] 통여신으로 다시세제를주문 — 長淵郡[illegible]面[illegible]院 [illegible]

권달험보에서 본고 약을주문하여 삼년된림질을근치 — 楊口邑外水川里 [illegible]一文

환자에게서 시용하야 못다나어 지감사하게선전하는중 — 平壤府竹典里二〇 [illegible]藥局主 李廷植 (끝전신)

內房漫談

음력설 ④
인정의기미를말하는모든풍습
吳淑根

윷노리

윷이어느때부터 낫는지는알수업스나 그사위이름으로보아서、적어도 고구려(高句麗)이전 부여시대(扶餘時代)부터 잇섯든것인가합니다。

윷판에 도、개、걸、윷、모라는것이 단군(檀君)때 전국을동서남북중의 오부(五部)로나누어 각각도가、개가、신가、소가、말가의다섯관장(官長)을두어 다스리게하고 전시(戰時)에는 이다섯군대백성으로 중앙、전후좌우의오군(五軍)을 조직하되 신가는중군대원수가되고 남어지 네『가』가전후좌우의 총사령(總司令)이되어 출전을 하게되엇는데 윷판편은 다섯『가』의 출진도(出陣圖)로서 도는도가요 개는개가 걸은신가 윷은소가 모는말가를가르친것으로 옛날 수렵시대(狩獵時代)에 도야지 개 소 말 이런畜生의이름을가지고 오방(五方)의신(神)의일홈에까지 쓴것이라는 사가(史家)의고증(考證)이잇습니다。(丹齋、朝鮮史에서)

연(鳶)

연은 전하는말에 고려말년에 최영(崔瑩)장군이 지금제주도인 탐라국(耽羅國)을칠때 병선이섬에가서 닷기는하얏스나 사면이 모두절벽에 가시덤불이욱어저서 발부칠곳이업슴으로 초조히날을보내다가 겨우한계책을 넘것이 연이라는데 큰연을 만히만드러서 동에다가 군사를 태워가지고 배우에서날려 제주성안으로 드려보내여 정복을하엿다고 하니 그러면 요새과학자들이대포로사람을 쏘아 화성(火星)을가보겟다는 소위로케트라는것은 오백여년전에 벌서 고려최장군의손에 성공이되엿다고할것입니다。

×

또 흑설에는 그때최장군이군사를배에실고 금기야제주도까지가서보니 온섬이 탱자나무가시성에 둘러쌔히고 섬안에는 날넨 여장군이 무수히잇서서 섯불리건드릴수업는 줄을알고 연에다가 새풀씨를 매달아 온섬중에 뿌려두엇다가 가을에 새가욱어젓슬때 다시연에다가 화승(火繩)을 매여 불을지르고처들어갓다고 합니다。아마 이말이 가기이방할것갓습니다。

서울서、큰연을날리기는 정월초사흘부터 보름께까지인데、호현원조산(虎峴祖山)과 수표교(水標橋)천변이 만히떼어서、아이어른 피리진까닭에、이두곳에、계성의 호화자제와、종류팔들이 각각자기의사랑하는 기(旗)를 다려고 이곳에나와서 우대、아래대나、다방골、시골들이나、이러케편을갈라가지고 서로연을얼려、승부를겨누는데 지는편에서 이기는편을먹인다든지하는일도업스나 자기편끼리는 윷을성비해가지고나와서 하로종일유쾌히、승벼잇이 질탕히놉니다。

이때에 만일행인(行人)중에 연을든다든지하면 그사람은잡혀서 뭇매에밟혀다시피되고 누구의집안에서던지 스면、그집에는 내정분간에 징두한다、부산다、도를운동하다시피합니다。

요새는 연줄이전선(電線)에걸리면、통화에고장이생긴다하여서 일반으로금하는데、수법점에도 일부인사가금의를빨주처로조산에서남비가 연날리는 대회를연일이잇섯습니다。

첫해일

정월초승에는 거의날마다 속기(俗忌)와미신(迷信)이잇는중에 첫해일(亥日)쥐 도야지날에는 떡비누를만들어무엇다가쓰면 검던얼굴도 차차로희여진다는말이잇습니다。

요새야무시아니다하시면 서양도야지는 비치희지만 동양도야지는 대개가검은데서 나온말이겟지요。

하여간 얼굴이희고시픈것은누구나다소원이지만 그러타고 저마다 비누를 만들어 쓰는것은 아님으로해서 일반여자에게 각각제 솜씨는 제손으로만드러쓰도록 하라는수단에서 이러미신의말을지어 내엇는지도 모르겟습니다。

그런때 요새얼굴마사지에쓰는 뭣크림쯤보면 일종의우연한 암합(暗合)인가싶습니다。

조그만데도인품 단장을골라집자
의복、년령、체격에다마저야할일 부인의조력이필요타

단장은 아무 필요업시 휘두르고 다니는것 갓지오만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쾌활도 해 보이고 늙은 사람들에게는 점잔키도 해 보이고 그여시 아조 소용이 업는 장식품이라고는 말 할수업습니다。체격、연령、의복에 마치어 적당한 단장을 골라 잇는다면 안악네들의 파라솔만 못지 안케 사내에게 잇서서 훌륭한 모양을 도울수도 업지 안합니다。그러나 어디 그런 것을 잘알아서 골라집는 분이 몃사람이나 됩니까? 그저 되는대로 지프니까 어울리지 안는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 례의에 어그러 저서 남의 웃음을 사는 수지까 잇는 것이 아니오니까?

×

위선 의복과 조화(調和)시키는 것인데

(1)례복(禮服)을 입엇거든 올롱올롱하지 안케 까근 흑단(黑檀)이나 스네잌드와 가치 장중한것이조코

(2)보통옷에는 등(籐)나무가튼 것이 조코

(3)스포―츠용에는 다래덩굴이나 나무그대로 깍거서 자연스러운 것도 조코 벗나무껍질을 입힌것도 무방할듯

그다음 연령과 조화시키는것인데

(1)갓살이나 자신 분들에게는 무소뿔이나 은으로 마구리를 장식한 것이 조코

(2)젊으신네게는 별다른 장식을하지 안코 그대로 두는동시 마구리도 넘어 동그라케 휘지 안한것이 조흘듯

×

의복과 년령에 따라서빗갈이나 문의도 달려야 할것은 물론인데 그이외 또 철도 보아야 하고 몸이똥똥하고 파리한것도 보아야합니다。똥똥한몸에 가느다라커나 또 아조 똥똥하거나 한 단장을 드려서는도리어 몸이 더 똥똥해 보이고 그 반대로 간얄핀몸에 그래도 역시 그럿습니다。하여튼 단장은 눈에너무 두드러지게 띄이지안코 순하롭게 보이어 지는것이 제일입니다。단장이 유표하야서는 가진 사람이 지지 눌리어 재미가 적습니다。

단장의 기리는 재각기 제 발로밤밥이 알맛고 굴기는 엄지가락보담 조금 굴근것이 알마슴니다。무게는 쥐는데가 무겁고 차차차가 벼워 나려가야만 집고 다니는데 경쾌한기분을주게됩니다。

×

단장에는 늘 자루의 질은 이 문제인데 일본서는 아모래도 서양처럼 그러케교묘하게맨들어내지를 못하는 모양입니다。대뿌리는 일본서 나건만 한번 서양가서 지지서 가공(加工)이되야가지고 와야만 아조 보기가 조흣습니다。단장중의 왕은 뱀껍질처럼 얼룩얼룩한 스네잌드인데 안데스산맥(山脈)의 산물로서 불란서의가공을 친답니다。자루하나를휘어서 철문을 맨드는데 삼년이나 걸린다니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자루의 대는 활은 무소뿔이라면 엿빗이 제일 비싸고 회색이나 흑색은 싸니다。그래도 빨중에서는 무소뿔이 조흣습니다。

박갓냥만 잘다니시는곳 ②
침묵의『오아시스』 티―루움

문 우리집아들은무슨걱정으로 집에드러오면 머리를동여매고책상아래서 무엇을생각하고 그저 하로라도 마음노코 옷는법도업스며 걱정이잇서보히는데 밤이면 자정이넘어야 집에드러옵니다。무엇을햇느냐고물으면 언제던지『차를마섯습니다』하고 입을 담으러버립니다 대저허구한날무슨것으로 차만먹는지요 그리고 차집이라는것이 대체어떠한곳입니까 여시술과게집이잇는게지요?

답 글세올시다 요사히젊은사람으로 차만마시고 도라다니는 사람이 비단당신아드님뿐이아닙니다。하로에 열잔씩차를마시고 차를먹지안흐면 잠을잘수업게된 사람도만습니다。차집이라는것은 몃해전까지도 서울에는 별로업섯스나 요지음와서 왈칵 느럿습니다。

서울안에도 지금은 찻집이상당히만습니다。차마시는사람의이야기를드르면 입에쭐이끼여 백일수업다고합니다。처음에 먹을때는 쓰고 맛이나지안흐나 그것이중독되면 나종에는 아주 향기가나고 조흡니다。차집에는 술가튼것은 절대로 팔지안습니다。폭신한 의자에 안저서 담배를 레우고 친구끼리 모여 안저서 차를 마시며조흔 유성기소리를 듯고 잇습니다。차는한잔에 십오전씩입니다。차에는 홍차라고하야 향기잇고단맛이잇는차가잇고 커피차라고해서쓰면서 향기잇는차가잇습니다。홍차는보통중독되지안흔 사람들이마시는데 웬만하개중독된사람은 대개 커피차를먹습니다。각설탕이라해서네모진사탕을두서너개넛코 우유를타서먹는것이 보통인데 우유를너흐면 차맛이 협하게되므로 당신네아드님가튼이는 아마 우유를타지안코먹을것갓습니다 차집에가서는 조용한곳이니 이것저것생각하고 젊은사람으로서는자기리상대로 사라갈수업게될때에 당신아드님처럼 걱정스러운 얼골로 말도잘안코 밤이나나지나 차집에서 차나먹고 공상에잠기기를 조와합니다。

차집에단이는 것으로서만은 그다지 흉잡히는 일이안입니다。몸에도 술먹는것보다는 돈도덜들뿐아니라 해도덜합니다다만는너무만히 먹으면 머리가 띵하고 잠자기가 잃어져서 다른 병이나기쉽게되다합니다 몸이고단해서 차집에가면 차맛이더 조와지는 때 고단한것을 푸는것이아니라더고단해지는것입니다。그러나아직 까지의 례로보면 차를만히먹어다해서 패가한 사람은 업는모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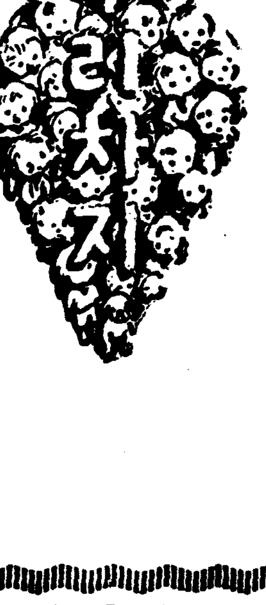
당신아드님가튼이는 차에다가 낙을붓치고 잇는모양이니 어떠케 하더라도 달래그사람의락이되고 희망을갓도록 해주는것이 조흘든합니다 마는 지나치게중독되엿스면 큰작스리 손을떼게할수는업슬것입니다。

비로―도 세탁하는법
몬지빼는데는밀人가루로

겨울동안에 부인네의 저고리감으로 만히쓰일뿐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옷감으로도 만히쓰이게되는 비로―드는 날세가 더워짐을 따라서 몬지와때가 눈에띠우도록 드러나는것입니다。이러한것은 재래로 우리가정에서 쓰던옷감이 아님으로 빨래하는법을 몰라서 절절맬것입니다。그러나 알고보면 여간쉽고 간단한것이아닙니다。

비로―드는 몬지가튼것을 만히먹고잇스므로 위선 밀가루를 한법고르게 떠부어 둡니다 이러케하면 밀가루가 몬지를 모두 빨아냄니다。이것을 빨래줄에 거러노코 돗자리털듯이 두드리면 말끔하게터러집니다 이다음에 깃과동정가튼데는특별히 더 때가무덧슬것이니 이런곳에는 벤진이라는 약을발라서 닥거내면됩니다。

생쌀을 가라가지고 물에타서 그속에 초화그리세린을 두세방울 떠러트리고그물속에 너허서 흔들어씨슨다음에 맑은물에 두세번헹구어 내엿다가 또 한번초와구리세린을 너흔물에헤워서말씀니다。말릴때는 다른것과가리지 말고 ……서는 못씁니다 그냥둘리우고 훗질을하면 됩니다 비누나 소―다를써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매운것

매운것이무어냥
고추
생강
마눌
게자
잣
후추
아니다 가만잇서아
버지 호차리가 제일
맴더라。

(금순사립 차형일)

探偵小說 假想犯人 (5)
金來成 作
鄭玄雄 畵

探偵劇(五)

제이막 제이장―

이룡홍 역시 유불란의서재。

불란은 의자에 걸터안저 그의 가상범인(假想犯人)으로부터 온 편지를 읽기를 시작한다。

………불란!나는 군이 보내준원고『가상범인』이라는 각본을 읽어보앗다。군이여!나는 그원고를 마즈막까지 읽고나서 군의 정신을 의심하노라。군의 정신은 평시의 온전한 그것이 아니고 망상에 붓잡힌 정신병지의 흐린흐린한 그것인줄로인정하지 안흘수업다。나는 군의 끗업시 날고잇는 무서운 공상을 존경하는 한편에 나는 그각본을 읽고나서 나자신이 취하지아니면 안되리도에 대하야 생각하여 보앗다。군의 흥분한 소설이라는 범위에서 떠나버렷다。군의 것잡을수업는 공상의 날개는 현실에잇서서까지 명탐정의 명성을 탐내고잇다。나는 그것을 탐정소설가 유불란을위하여 섭섭히 생각한다。

불란군! 군은 너무나 무서운 투쟁을 나에게 던저노핫다。나는 지금 노해야할지 우서야할지를 판단하지못한다。그러나 그것도 결국 몽란을 사랑하는군의 열렬한 마음에서 나왓다고 생각하면 그다지 분하지도 안타。나 역시 군에게 지지안흘만한 정도의사랑을 몽란에게바치고잇슨 때문이다。참으로 사랑이란 무서운 물건이다。그러나 결국 이『가상범인』이라는연극으로 말미아마 진정한 범인이 나타나서 몽란이가 무죄방면이 된다면 그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그 무서운 편지는 내가슴속에 불떵어리와 가튼 증오와 반항심을 드디여 심어주고야 말엇다。그러나 군이 흥분하면 흥분할수록、그와정반대로 침착하여가는 나의 심리상태를 군은 상상할수가 잇슬가。군의 가슴은 지금 몽란에대한 사랑으로 말미아마 그리고 몽란을 옥창으로부터 구해낼 일심으로 말미아마、방금 터지랴는 화산과도 가티 뜨거운듯십다。그러나 나는 군과 더부러 흥분해드릴 여유를 가지지못함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바이다。

불란군! 군은 군이 창작인『가상범인』이라는 극가운데서 바영민의 살해자를나라고 불렀다 내가 죄장을 죽엿다고 군은분명히 썻다。내가 의심가능자라고 군은 생각하고잇다。나는 군이、조선탐정소설계에서 들도 못보는 유일무이한 가장 명성잇는 탐정소설가인줄을、누구보다도 잘알고잇는사람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잇다。그러나――아! 나는 과거에 잇서서 군의 탐정소설을 그 얼마나 탐독하엿든가! 조선은 막론하고 세계의표준에 비하여서 추호도 손색이업는 군의 탐정소설!그러나 그것도 모두 과거의 일이다。군은 일생을 다지 탐정소설가로서 보내야만 될것이엿다。그러나 지금 군의 공상은

그러나 불란군!군은 모름직이 자기를 반성해볼이 조흘것갓다。군만이 몽란을 사랑할 권리를 가지고잇고 군만을 몽란이가 사랑하고잇다고 생각한다면 군은 어리석은 자의하나일것이다。과연、군이 월직이 생각하고 잇는바와가티 나의 용모는 괴인과가티、흉악하고 증생과가티 더러웁은 사실이다。그러나 나 역시 증생이 아니고、한개의 사람이다。소경을보고 소경이라고 불러보라。소경의 얼굴에서 평화의비츤 살어진다。이리하야 군은、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혜아릴수업는멸시를 나에게 주엇다。나는 그것을 서슴치안코 바드리라。그러면 군의본곳이 이형이되여스테―지에 서기를 굿게굿게 맹세한다。

재신――지금 도 군의 재이신을 바덧다。펜찻다! 사실전부를 세상에폭로하라。군과 나의 사적관계까지도 하나도 빼놋치말고 그『가상범인』이라는 극가운데 너어노아라。지금 쓰고잇는 이편지까지도 필요하다면 극에 너어라。사회의 공평한판단을 엇기 위하야――

불란은 편지를 국여쥐고 벌덕 이러낫다。

『자옹은 시작되엿다!』

막이 천천히 나린다。

살결을본바탕부터 곱고히게만드는

하로에 두번 三四分치료면된다

사람의 인정으로 어엽분것 깨끗한것을조화하며 사람을대할때에도 먼저 모양보다 얼골을 치여다보게됩니다 흔들이 어느분이나 갓갓슬때에는 어엽분자게와고흔 살결을가지고나왓스나 오늘날까지 그와가튼 어엽뿐얼골을 보존하고계신분이 몃분이나 계십니가!

그러므로 흔이 날름이 모도한다고 다가리 얼골을히게하라고 분(白粉)、크림、골등으를 하서서 일시적화장을 하시고계시나 이것은 그당시뿐이지 조곰만지내면 오히려 아니발르신것만도 못하게되고 그살결본바탕은 점점 떠욱흉하게될것이니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게실줄밋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살결이 거문것은 피부의세포에 색소층(色素層)이 생등이잇는까닭이며 살결이 거칠거나 얼골에 무엇이모도생기거나 주름이잡피는것은 피부면에 병균이붓헛든가 혹은 피부영양(營養)이 충분치못한든가 피부의신진대사기능이 충분치못한까닭에 그런것이니 그런원인을 그대로두시고 다만 거짓장만하시니가 그럿케 아모리조타는화장품을 발느서도 살결이 거칠어진것도낫지안코 버짐、죽은깨、여드름이 그대로잇스며 살결도 본바탕으로 히고곱게되지안을것입니다

그러면 엇더케하면 조흐냐하면 활성(活性)고로이도유황(硫黃)의 미백소균작용(美白消菌作用)으로 근본료법이되는것이 구미각국미용계에서 승인되고잇스니 즉『레온洗顔크림』으로 곳치시면 단시일안에 근본료법이 됩니다 가정에서 간단히 사용할수잇스니 하로에두번식 三四分치료에 약용이될뿐만아니라 화장이됩니다

처녀시대…명랑한 신녀성의 생기와 청춘의 꿈을 어엽분 얼골에서 찾기위하야

가정부인…시부모 남편시중에 골몰하시는 사이에도 간단히 집에서 사용할수잇스므로 늘 근심업는 애교와 매력이 발휘되어 평화한가정을일울수잇스며

직업부인…직업상 허는수업시 매일화장을하시게되어 분때와 연독(鉛毒)으로고통밧으시는분은 분에거른피부를청백하게하고 연독을排泄키위하야

여드름·버짐·죽은깨·기미로고생하시는분이나 살결이 거칠고 잔주름이만흐며 얼골색이 거문분은 주저마시고 레온洗顔크림으로 곳처서 자기만이가실수잇는 어여뿐자태를 차저주십시요

―정가―普通瓶一圓四十錢、德用瓶三圓四十錢 전도유명한 약방화장품점에서 판매합니다마는 매절되엿때에는 송료삼십전을 선송하시면 대금인환으로도 송약해드립니다

무대진정 통지하시는대로 조선국문으로쓴『신가정미안료법』을 어느분에게도 거저드립니다

發賣元 株式會社 レオン商會 東京市神田區小川町西三丁目 振口東京八八一番

專賣特許·活性고로이도硫黃保有

레온세안크림

獨學青少年諸君!! 無學は男の恥

自宅을學校로 不過一年 에힘안드리고 全科卒業! 立身出世의基礎를 于先中學卒業으로

最新 中學講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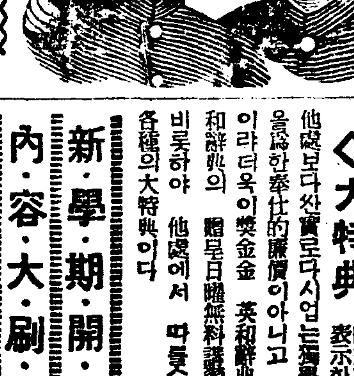
他處보다도會費가싸고…
他處보다도알기가쉽고…
他處보다도卒業이빨러…

諸君의머리에빗나는徽章

◇小學校 를卒業하고 年年數十萬名이되는데 不幸히도家庭形便으로上級學校에 갈수업서 바로實社會에나서는 사람이나 家業을돕는사람이 泰山갓다 이가튼有爲한靑年이 小學校以上의工夫를 繼續치못하고 虛送歲月을하는것은 當事者만이아니라 躍進하는朝鮮에 羞恥이다

◇今日의 實社會에 서成功하려면은 複雜한社會의 第一線에서서 活躍하려면은 어떠케하든지 中學程度의 學問이 업스면決코大成할수 업슬뿐아니라 將來의生活까지도 不安하게된다

지금入學하면 今年中에는힘안드리고卒業할수잇다



◇그러나 家庭形便으로中學校에 通學치못하며 希望에타면서도煩悶하는사람은 어떠케할가 거기에는 本校의 最新中學講義錄으로工夫함이 第一便하다。

中學講義錄은 世上에만키는하나 不過一個年의 特急스피―드로졸업시키리 자미잇게 卒業할수잇는것은 이 最新中學講義錄外에는 또업다。

◇入會하면은 每月 二冊씩을올마 한講義錄을送本하고 따로히趣味가만코滋養豊富한 有益한參考書를 一冊씩送本함으로 每月四冊씩 配本이되며 自宅에서家事의餘暇와 朝夕의工夫로 不過一年동안에 中學全科를卒業할수잇다 이러한新式通信教授法은『스피―드時代에 다시업는理想的組織이다』

◇學科目은 다음과 갓다。

▲修身 ▲英語 ▲幾何 ▲公民科 ▲英文法 ▲三角 ▲國文 ▲英作文 ▲博物 ▲漢文 ▲英習字 ▲物理 ▲作文 ▲歷史 ▲化學 ▲習字 ▲地理 ▲農業 ▲文法 ▲算術 ▲工業 ▲圖畫 ▲代數 ▲體育

即、中學校正科를 全部網羅하야 捕備를만히너엇코 講議는平易를第一로、모도滋味잇고、누구나알기쉽도록 工夫할수잇스며 더욱이質問이잇스면 몃百番이라도알수잇게 先生이丁寧히郵便으로明快하게責任回答한다

여서 本校의最新中學講義錄外에는決코업다。

◇大特典 會費는右에表示한대로 大特典付로學資不過一個月一圓

講義錄……二冊
參考書……一冊
機關誌……一冊
合計四冊式本配하고 其他各種

他處보다싼實로다시업는獨學諸君을爲한奉仕的廉價이아니고 무엇이라 더욱이奬金金 英和辭典 漢和辭典의 贈呈日曜無料講習等을비롯하야 他處에서 따를수업는各種의大特典이다

新·學·期·開·始 內·容·大·刷·新 會·員·大·募·集

이제昭和十二年度新學期開始를 따라지금獨學開始의 機會이며 少年은 긔기쉬우니 後悔하지말고 工夫는 지금부터 해야만한다

그러던 諸君은 今年에꼭이完備된 理想的 最新中學講義錄에 入會하야 將來立身成功活躍의基礎를자하라

見本一冊進呈 葉書로申込次第 本規則 一冊無代進呈 말고지금곳申込하여라

東京市牛込區台町 大日本通信中學校

二月創作評 (三) 本格小說論

—眞實感과 通俗性에關한提言—

安懷南

『童骸』는 안해가 結婚하기前부터 벌서 處女가 아니여서그것을 煩悶하는 男子의 心理를 그리엇고『따라지』는 가난한 貧民窟의 이모양 저모양을 點描한 作品이다。前者는

—身— 邊的主觀的이요 後者는 非身邊的 客觀的이지마는 둘다 作中人物의 立場에서보면 各各個人의 周圍만을 맴맴돌고잇는 小我的世界이다。『童骸』는勿論이거니와『따라지』는『그들』나『童骸』를말하엿스나『난』接觸하는部面이 小規模인것은同一하다。단지 相異한것은 나라는自對象은 어듸까지든지 나의身의 內部이기때문에 必然的으로心理의經明으로 흘럿고 그들의對象은 또한 그들이라는 小集團의表面인까닭에 結局 行動의追求로 分裂한것뿐이다。

勿論 李箱氏와 金裕貞氏 두분은 다른作家들에게 견주어 이야기할 材料를 豐富히 가지고 잇는것만은 事實이다。그것은全然 不勞而得하려하지안코 어느程度까지 나의心理를 經驗하엿고 그들의行動을 觀察하엿기때문이다。懷中에서 마메콩 끄내먹듯하는 社會的關心과 그런데마와는 조금 다르다。萬若 이러한環境 李箱氏의 經驗이 金裕貞氏의 觀察보다 더욱

—深— 刻하면『童骸』가또는 金裕貞氏의 觀察이 李箱氏의 經驗보다 더욱 緻密하면『따라지』가 그題材의眞實性에잇서서나 이야기 스토리의多彩함에잇서서나 서로서로優劣할것이로되 該兩作品은 머리서부터 발끗까지 그뎌흔수가엇비슷한양가다。前言한바와 가티 두개다 比較的 優秀한것임에는 틀림업지마는 前者는 情緒가 좀더 純潔하지못하고 後者는 意識이 아주 强大하지못하엿는게 자못 遺憾이다。即『나』의 燃燒가 不足하고『그들』의 飛躍이 未洽한것이다。主觀에對하여서나 客觀에 向하여서나 무엇한가지

問題를 끗까지 探求하고 揭出하라는 冒險家의行動보다 于先 性急하고 安逸하게 作品한개를 裝飾하여 노호려는 奇術師의努力이 압서기까닭이라고 認定한다。

身邊小說과 本格小說을 比較하여보면 兩者가다 屢屢히 指摘해온바와가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中途半端의作品보다는 하나는

—主— 觀的으로 하나는客觀的으로 各各 忠實한것이나 身邊小說은 作家가 主觀的인만큼 좀더 素材가 眞實할수잇고 本格小說은 作家가 未知의것을 組織하는世界外面的인 行動이 中心인만큼 보다더 스토리에 豐富할수 잇는것이라고

생각한다。兩者의 長點과短處가 서로서로 作品우에波及하는 缺陷은 深大하고 델리케이트하야 一言而蔽之할수업스나 첫재 하나는 眞實하나 狹隘하고 하나는 廣汎할수잇스나 觀念的이기쉽다고 말할수잇슬것이다。그러키때문에 포켓트속에서 나오는 이데오로기따위는 論外이고 頭腦와 心臟이 倂合하야 作用하는데 비로소 人生의 斷片은 우리 藝術品우에 더욱 人生의 斷片이나 그斷片의 斷片다웁게 再現할수잇는것이 아닌가한다。이리하여서만 作品上에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宿題로 내려온 個人의 眞實性과

—社— 會의現實性의融合 리알라이즈와 스토리의 必然과 偶然의 創一

明確히 客觀的 現實性을 作家의自我內에 內包하여서만 비로서主觀的 眞實性이 可能할것이며 또 이러케 客觀的現實性과 主觀的眞實性이 統一되는곳에서만 文學的眞實性이 생길수잇는것이다 라고韓雪野氏는 日前 本報 所載『技巧主義의 彷徨』속에서말하며 心理小說을 써도 無妨하다 身邊小說을 써도 조타다만 要는 上述한바와가티 그心理로 하여금 主觀的眞實이 되게하기爲하야人間의 永遠한 同伴者인 歷史와 現實에 即 客觀的現實性에로接近하여 가지안코면 안된다고勸告하엿다。

身邊小說하면 쥐꼬리만한 히스테리컬한女子만양으로 내대기만하는 一部 輕薄한批評家들에게 견주어 매우본받을 敎訓할만한 論議라고 나는 首肯하엿다。그러나 이러한 忠告를바더 맛당한것은 身邊小說家나心理主義作家들 한편작뿐만이 아니다。그것은 임이 우에서

—說— 明한것과가티 여기서도 擧中品的 이데오로기主義의 업자가보는 作家와作品은 말할것업고 정말本格小說에서 意圖되는 客觀的現實性 그것도 作家의 心臟으로서 身邊化되고 意識의構成우에 다시 心理와情緒가 浸透되어야 비로소 眞正한 客觀的眞實性이 보다더 可能한것이 아닌가한다

建國神話 (四)

金永鍵

安南通信

雄王은 그의아들에게 이땅을논하주어 다스리게하고 모두 장수와 宰相을시켯다 그중에서 장수는 貉將이라고 부르고 宰相은 貉侯라고불럿다、王子는 官郎이라고부르고 王女는 媚娘이라고부르고 司馬는 浦正이라고부르고 奴僕은 卯婢라고부르고 신하는 瑰라고불럿다。

아비에게서 자식에게로대를 물림은 임군도 가터서 임군의 대를잇는자손들은 모두 雄王이라고햇다 그럼으로 鴻厖氏라는 名稱과가티 雄王이라는名稱도 어떠한 임군을가리치는 이름만은아니다 그리고 龍君의 일백아들이 퍼저잇는곳을 百粵라고햇다。

그런데 산속에사는백성들이 고기잡이하러 물가에나오면 오다가다 蛟龍에게害를당하는일이만헛다。

이제 이魚精의이야기를적어보면 本來東海에는 魚蛇라고하는것이 살고잇는데그기리는 쉬흔길이 넘엇다。그리고 발이만허서 마치지네와가텃다。그뿐아니라 그것은 變化하기가 꿋치업고 靈異하기가 짝이업서서 한번 울기면 바람이불고비가오며 걸핏하면 사람들을 잡아먹음으로 누구나 두려워하지안는사람이 업섯다。

그런데 그때에 물가에사는사람들은 어떠햇느냐하면 본래 그들은 물고기엿섯는데 얼골만은사람으로생겻섯다。그들이가끔 東海岸에 나와놀다가마치내는사람이되어말도할줄알고 子孫들의數것도 사내와 계집이 다가티 붓게되엿다。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새우 조개가튼것을 잡아먹고 살앗다。

그리고 이곳 저곳의 섬들에서는 野蠻人들이 고기자비로 生活을하엿다。이野蠻人들은 흔히 물가에 사는 사람들과 쌀 소금 옷갈 도끼가튼것들을 바꾸느라고 왓다갓다햇다。

그런데 東海에는 魚精岩이라고하는 바위가잇서 톱으로 깍근듯한놈이 바다가에 서 잇섯다。그리고 그미레는 큰 窟이 잇서 그미레 魚精 即 魚蛇가 살고잇섯다고한다。그래서 사람들의 배가그곳으로 지나가기만하면 바람이불고 비가오고 물결이 노파서 다닐수가업섯다。혹시 다른길을 뚜러볼라고해도 어데나할것업시 돌들이 깍거질려서 그도할수가업섯다。

그때에 그곳에잇든 신선하나이 이돌들을 뚤코 滄口를만드러 사람들이 오고가기에 便利하도록하엿다。그런즉 魚精은 흰 닭으로 변해서 새벽이면 高山우에서 울고햇다。神仙들은 그소리를듯고 새벽빗츨보기로 되엿다。지금도 그곳을 전瀨港이라고한다。

그러나 終始 魚精의 작난은 그치지안햇다。

그래서 龍君은 百姓들의 禍根을 끈코저 큰배를 만드럿다。그리고 물귀신에게 波濤를 이르키지 못하도록 일르고 魚精岩에 이르럿다 그곳에서 龍君은 사람하나를 미끼와가티 드러보이매 魚精은 먹을것이낫다고 입을떠벌리고 불곳을 내뱉엇다。龍君은 쇠덩이를 벌거케 달어가지고 魚精의입에 던저너헛다。魚精은 놀라고 괴로움을 못참어서 홋다다뛰여오르면서 배전을 처다

四溫肆想 ②

李孝石

第2日

여럿이 한좌석에모여 안젓슬때에 圓卓을둘러싸고 두편으로갈라저노는 패노름이 잇다。

재료는무엇이든지 조흘것이나 가량 銅錢한닙이 한패의누구나의한사람의 한편손에들엇다고하면 마즌편패는 그것이어느손에잇다는것을 민첩하게 알어내야한다 알어낸때에는 銅錢이그편으로옮겨저가고 못알어낸때에는 헛손질한만큼의 數爻의 得點을 상대편이 엇게된다。마즌편패가『장컨스·업』을부를때에 이편패사람들은 두손을 모다치들고 銅錢을 가진손이 어느것임을 분명히보인다『장컨스·다운』의군호로 손들을 일제히내려圓卓아래에 못고비밀한 暗中鳩首(手로) 銅錢을 한사람의 한편손에 憑托한후악마즌때 마즌편이『장컨스·온유어·테이블』을부르면 은밀한약속으로 젓쳐진손들을 동시에 일제히 탁자우에올려노코 어느손에銅錢이들엇나의摘發을 마즌편패에게 맛기는것이다 똑바른摘發의方法은 即勝敗秘訣은 온전히 상대편의민첩한洞眼의활살을 막어내고 흑은 무조러트리기위하야 鬼祟의所有者는 가진꾀와방패를 다준비하여야할것이니 따라서 兩者사이에는 잠시간 경경의心理의躍動과 가지가지의智慧의飛躍이 번개가티 去來하게된다。사람의마음을 낙구어보는 時節의鑑賞의경우와가티 여기에도 또한두고비 세고비의 變法이잇슬것이 확실하다。

판여은 摘發者의 視線을 밧는 鬼祟소유자의 態度와 손과얼골의表情에 잇는것이니心理의躍動이 스스로 그表情에나타날것이니까말이다 그에게는果然 몃고비의心理의 轉動이잇슬것인가。一段二段三段까지의 心理跳躍을 생각하야보자。귀치안흔 물건을 가지고잇슴으로말미암아가진체하는 初步的 一段法 한꾀를내서 가지지안흔체하고 天然스런표정을지니는 欺瞞的二段法 한수의꾀리가지고잇슴으로러노코 가룹터하야세고비를뛰여 차라진체해보는 還元의三段法 의三法이다。三段法과一段法은 結果의顯現은 同一하나 그心理的 過程에 잇서서 單純하고 直線的인 一段法보다는 三段法이 두층이나웃수임은勿論이며 다시二段法과비길때에도 한마듸더구분한段의꾀임이확실하다。꾀가 기픔으로 도리혀 꾀를보이지안은결과가되엿다。無智의 當며 無技巧의技巧인것이다

다시 四段五段六段……으로 거듭하야올라갈때 꽤는 끝코 智慧는限업시느러간다 나종에는 그야말로 별을딸수잇을는지도모르나 그때에는 도리혀 智慧의過剩으로 말미암아 自滅하기쉬울것것이다。꾀는 곳 欺瞞을意味하는것이니 圓卓遊戲는우리에게 欺瞞의敎訓을 던저주는것이다。탁자를 둘너싸고 안저서 거짓웃음꾸미고 虛勢를 보이는 그자태들은 그대로가바로 現實生活에 處하야 가는자태 그것이아닐까。가장 천연스런거짓을 꾸미미—三段法을 능난하게씀이 處世와 生活에서 이기는秘訣일것이다。

三段法과 關聯되는것에 포오의 短篇小說이 잇다。이야기의 記憶조차 어슴푸레하나—수색당하고잇는 귀중한문서를 감추기에 괴벽한 壁속이라든지 鋪道의돌미를 리용하지안코 주인공은 일부러 허수한 곳을逆用하야 눈에가장 잘띄울可能性이만흔 책상위銭繩속에 뒤구말구던저 둔결과 도리혀 수색자의눈을 효과잇게 피할수잇섯다는것이다。수색자는 항용궁벽한 은밀한곳에 눈을 보내기 쉽고드리난곳은 注意하지안코 그대로 스처버리기 쉬운것이기때문이다。주인공은 두고패의꾀를써서 깍작가리 효과를거둔것이다。위험한三段法의 完全한成功의一例를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볼수잇다。

學生作品

二斷想二 生의一夜 (一)

聖經學院 吳丙洙

멀리멀리갓더니
처량하고곤하며
슬프고도외로와
— 정처업시단이니

그러나 이것은 狂風을 떠밀수잇는 能力잇는態포엿다。그追憶은 屍骸에가까운 나의 매련업는現實을 부둥켜안고 冷冷한밤을 오래도록오래도록 이노래로써弔喪하는것이다。

人生의바람을 나도바라는바에야 그힘의한조리도 애끼고십지안헛다。온實답다가 來日은는限이잇드래도 나는 산오늘을 遍歷이시 나의所欲에對하야 無制限無進하고십헛다 기어코나는森進하엿다 人生의森夜가 나의압흘 千丈萬丈가리막어도 나는쉬지안헛다。(슬들리지안헛다비탈에 나둥그라지고 웅덩이에 빠질지언정 다시이러날힘이잇슬때까지 決斷코 決斷코 쉬지안헛다

○

여기는平坦이다 여기는險谷일세 나는달려갓다 어대서인지몰은다 킥킥하고 우슴소래가들려온곳은 보기조케 나둥그러젓든모양이지 아뜩한瞬間이아니든가 萬難의人 나는 다시이러낫다 또달렷다 하지만 킥킥킥킥하는 우슴소리 그것은 도대체 어떤놈의 우슴소리가이칼칼한밤 나는咫尺을 分別치못하고 달리는 이밤이아닌가 그러나 정녕코 이밤에도 보는놈이잇는게다 그러킬래 나의 나둥그러지는모양을 고러케 얄밉지게 우서대지 두어라 이놈들 우슴대면 우서라。나는 멈추고 서서너이들의 이름을아려 是非할餘暇가업다。앗차 먼저는 덕시를 넘엇드니 이번에는 무슨기둥과도가튼 네모번듯한 어느모슬기에 이마바지를 한모양이다。精神이 얼떨떨하다。이제는 나는 暫時間 멈추지 안을내야 안흘수업다。휙—하는精神을 잡간우서야겟다

좀더 생각하면 캄캄한밤이아닌가。빵울처도 모를밤이아닌가 업치락 뒷치락 하게되는 밤이아닌가。그런데 저우슴소래는異常하다。이어둠의 漆夜을놀고두려시보든 그무슨 存在가잇단말인가。存在가 잇다면 그것은어둠의것이다。어둠밧게는 나외에 뚤을보는 아모것도업슬것이다。하도하도異常하기때문에 무려보는것도 無妨할듯햇다

『어둠아 그우슴소래는 네소래지?』

『아니』

『그러면 누구소래냐?』

『너의눈놀 가리운것들의 소래야』

『응? 아내눈을가렷서?』

나는 놀래엿다

『응 네눈을가리웟서 그래서나가르게 생겨낫지』

어둠은 正直하게말햇다 그를게다 어둠이어데잇나 내눈이머려서 어둠이생겨낫지。내눈을 멀게한놈은 어떤놈이냐 어떤놈이 내눈을가려노코 喜悲劇을꾸미고 잇느냐 나는이눈을 뜰能力이업느냐

나는또달렷다 막우달렷다 아모것도안보이기때문에 막우막우달렷다。숨찬다。숨찻다。막우달려랑 아—그러나어느새 되내기마진랑파처럼 내四肢는시들엇다。暴音은 드듸어나의心臟을 찌저버린것이다。그破裂은 하늘노피 呼訴하엿든것이다。캄캄한 行路에 굳두박질치는나 그내를。

科學

銅에對한小考察 (二)

—그發見의由來와利用—

米國理學士 金鍾煥

大腸菌 乳酸桿菌類과 또는 酵母類 特히 臟牛의 器官細胞內에 存在한 銅의要素는 常例로 有機化合物로 되여다 벌즈며엘빈博士는 軟體動物의 血液을 分析發表하엿는데 約三十六퍼센트의 靑血色素 (銅의要素가 血液中에 包含되여잇슴으로 銅의要素와 헤모사야닌이 化合하는 境遇에는 血液이 靑色으로될으로 銅의要素를 靑血色素라함)가 血液中에 存在하엿다고 發表하엿다 銅의要素는 또한 鳥類中에 어떠한새(鳥)와 羽中에 色素를로 잇다는것도 發表되엿다。

野菜類에使用되는銅

제、에취、롱—(E.H.Long)博士의主張에依하면 銅을 野菜類에 加入하면 新鮮한 綠色을 나타내여 果然 먹음직하게 보힌다고 同博士는 說明하엿다 銅을 野菜類에 加入하는데 對하야野菜每킬로그람에다가 約[illegible]乃至一〇〇mg의 銅을 加入하는것이 適量이라고한다 銅이 植物細胞內에 들어가서 細胞內에存在한葉綠素와 化合하여 一種의堅固한 化合物이 構成되는것은 銅이葉綠素에 미치는 特殊作用이라할수잇다 만약 葉綠素가 變質치못한 老衰한野菜에 銅을加入하면 銅이葉綠素에 미치는 特殊作用을 하지못하여 그加入한野菜를 食用하는 境遇에는 或時 消化와新陳代謝作用에 障礙를 기게하여 害를맛는 例도잇다。그래서 반드시 幼嫩한野菜를選擇하여 銅을加入使用함이 第一 安全할것을 말하여둔다

銅의要素는血球素를再生케한다

最近 米國 生理化學者 하트「Hart」、스틴밥(Steenbock)、첨엘(Waddell)、엘브젬(Elvehjem)의 最近硏究인 牛乳 銅鐵等에 混合한 金屬을 實用化[illegible] 血球素를 再生시켯다는 發表가잇다。

漢詩

桐岡 考選

題松

押松

佳作二之二　市內弘濟町九十三番地　嚴柱翊

自任盤桓獨有松
寒猶盛夏秀深冬
疎枝得月相隨影
直極凌霜不改容
晚節堪宜遣汜戎
清標豈願受秦封
尋常衆木推爲長
本性孤高孰與從

薔薇園

延專 尹泰雄

바람이 가로세로 휘날리는데
바람속에선 사람들이 휘날려——
휙!휙! 달려가고
휙!휙! 달려오고
바람이 머리를 풀고
미친듯이 날뛰는데
뜨랍질을 꺼꾸로 하고 쏜살가티 내뺀다。

날개쪽지를 쪽—펴고 날으는
가벼운 제비모양——
마음대로 날려가질 안는 몸동아리
달려도 달려도 시언치를안허
바람이 온다
사람이 휘날른다。
볼따구니 마다
붉은 薔薇가 피고—

●學園消息●

第十九回東城醫專集談會

日時 二月十七日(水)午後四時

場所 附屬醫院A講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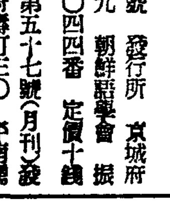
演題

一、[illegible]의一例　富軒 [illegible]君

二、[illegible]研究(第三報)　金 [illegible]君

三、[illegible]에依한 貧血의 發生에對하야　平岡擧之助君

四、紅[illegible]「아미」族의奇習(「아미」風俗、資料供覽)　新谷 敎授



▲한글 二月號 發行所 京城府花洞町一二九 朝鮮語學會 振替京城一〇〇四四番 定價十錢

▲大成時報 第五十七號(月刊)發行所 平壤府壽町三〇 平南儒林聯合會 振替京城六〇一六番 定價一部六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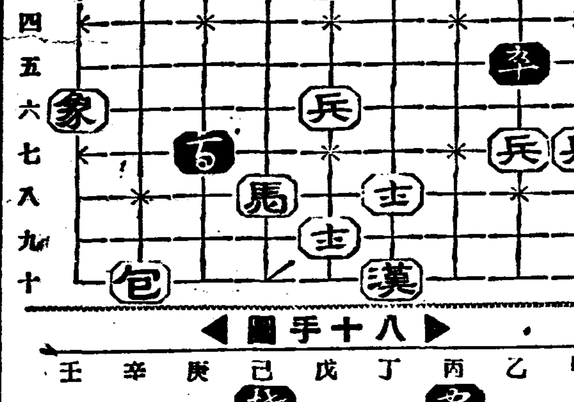
▲새사람 第二輯 發行所 京城府龍里町一〇八 福音社 振替京城八〇七九番 定價二十錢

▲京城敎育情報 第十二號 發行所 京城府臥龍町一三九 京城府敎育情報社 振替京城二六六五九番 定價一部二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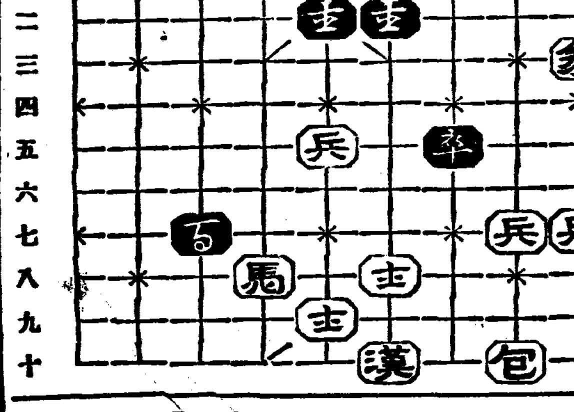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八)

漢先手 李在鳳　楚 金復起

◀十七手圖▶



◀十八手圖▶



壬六象—己四
戊一●—己二
己四象—丙六
戊三●—戊一
丙六象—甲三打車

戊一●—丙一打車
辛十包—乙十
乙五●—丙五
戊六兵—戊五
丁一●—丁二

武田藥品

消化不良 食慾不振

비타민B의補給

アペチン錠의 主要成分인 비타민B는 胃液의分泌를 增加하야 消化를旺盛하게함으로 食後마다에服用하면은食物의消化吸收가 잘되며 便通은 整調하고 食慾도 增進한다

特히 胃腸病으로 消化의關係上 制限된 食事를 攝取하게되는境遇에는 屢屢히 비타민B의 缺乏을만들고 疾病의治療를 더듸게함으로 恒常 비타민B의 補給에 留意하지안흐면 안된다 이意味에서 アペチン錠의 服用은 極히 效果的이며 胃腸疾患의 治療를 빠르게 한다

肺結核 患者 慢性病者에

抗病力을强하게、榮養이亢進

肺結核、諸種의 慢性으로 熱이잇슬때는 多量의 비타민B·D를 일케된다 그때문에身體의細菌感染에對한 抵抗力이減退하고 組織의再生이 減弱해진다 그럼으로이런때에는 비타민B와D의基源物質인 兩者를補給하는 アペチン錠을應用하면 治癒에好影響을밋치게한다 또한 アペチン錠의食慾과消化의促進作用은 榮養을充實하고 體力을增强식힌다

〔適應症〕 消化不良、食慾不振 常習便秘、便通不整 脚氣、貧血、榮養障碍 乳兒綠便、發育不良 病後의榮養增進。

〔藥價至廉〕 [illegible]錠([illegible])三〇〇錠(一圓) 一月中分 五〇〇錠(二圓五〇) 三ヶ月分 一〇〇〇錠(四圓五〇)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關東代理店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37—153(0)

食後に アペチン錠

胃腸の機能を增强

000955

聲樂硏究會十四回公演
歌劇 淑英娘子傳上演
二月廿六日부터七日間 市內東洋劇場에서

朝鮮聲樂硏究會에서는 얼마전에 平壤公演을 맛치고도라와서 即時十四回公演의 準備에着手하얏다。今番公演은唱劇『淑英娘子傳』四幕 六場物로서 脚色은 金容承氏 演出은 丁貞烈氏가맛터서 宋萬甲 李東白 金昌龍氏 等의指揮미테 지금練習을 繼續하고잇다。오는 二月二十六日(陰正月十六日)부터 一週日동안市內東洋劇場에서 올리게되엿는데 이市內公演이끗나면 곳南鮮地方의巡廻를 떠나리라고한다

脚色 金容承
演出 丁貞烈
指揮 宋萬甲 李東白 金昌龍
效果 韓成俊 丁元燮
裝置 金雲善
出演 丁貞烈 李素香 丁南希 朴綠珠 吳太石 林小香 外四十餘名

映畵批評
安鍾和氏作 人生航路
L・P・K

이映畵를 對할때도 朝鮮映畵라는 헨듸캡을 가지지안을수업다 그리하야 朝鮮映畵라는어린아히를 가장사랑할줄아는 한사람으로서 그아히의 長短을가려보기로 하지안흐면 안되겟다。

첫재 이映畵에서 監督安鍾和氏를 차저내여보면 그는이때까지의 作品에서 아즉어리면서도 엇절수업는 만내리즘에 걸려잇섯슴을 보앗더니 이作品에서비로소 벌을옴길수잇고 움직일수잇게 되엿다는것을 發見하얏다는것ー이것은 藝術家만이 가진보배로일것이며 그藝術家의 發展을爲하야 업지못할要件이 되는것이다。

安鍾和氏는 여기에서 차근차근히 무엇을차젓스며 人生을듸게보랴고애썻다 한場面과場面의 산듯한變化 여기에 朝鮮의땅과 마을과 江물과山과들과 나무가 그의눈에는 아름다웁고情다운무엇으로 보이엿스며 藝術的이衝動을이르키고잇섯다。적은 나 朝鮮사람의참된生活을 차즐수잇는風俗ー그리고 까치가 나무우에서 지저귀는 정말朝鮮의모양을 그는캐취할줄아러다 여기에는 아모런誇張도업섯고 적은獸殺도업섯다。十九世紀自然主義手法에서 한거름나아간—그러나 現代的인寫實主義에到達치못한데 그의어린맛이잇다면 이것으로서 그의發展을準備하는 契機가될것이라고생각한다。

스토리ー는 平凡하다 서울市外往十里쯤에서 일어날수잇는듯한內容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前半의차근차근한 展開와 沈着한熱에比하야 後半의 操急스럽고 無理가만헛다 監督은 主人公을 지나치게同情한나머지 그의相對役을 지나치게槪念化시켜버리엿다 그의行動이라던지 모든것이不自然하기짝이업섯다 演技에잇서서는 主役李源鎔氏의 빈틈업는演技—이사람은俳優로서 老練한맛이 監督 安鍾和의 어린맛에比하야 조흔 콘트러스트가되여잇다。이사람은 이 映畵에서 한개의 재人말양을 지을것이다 여기서 만내리즘에 걸리지안코 나아갈수잇다면 이사람은 아프로큰 發展이 잇슬것이나 잘못하면“가다꾸나루”하지나안흘가십다。女舞英의 演技는 未完成老練이다 이것은 그를爲하야 가장혼일임에 틀림업다 撮影李信雄氏는 朝鮮에서는 그만하면 失敗라고 보기에는억울하나 한가지編輯과 타이틀이잘못되여서 빗날수가업게되엿슴이 애처럽다

이映畵에서 映畵自體의 問題를떠난 한가지事實를 말하지안흘수업다

이映畵에서 前半엔 한가지主要한役으로 登場되여잇는文藝峰이 後半에서—라이틀이 五年後로나오자—차침을 갑주어버리고 말엇다 五年前에는 將次이야기거리를 만들어야할 中學校學生으로 나오던사람이 五年後에는 다른사람의 이야기만 남어잇고 그의後日譚은업섯다 석집을가서 賢母가되엿는지 그가願하던職業女性이되엿는지도모지업섯다 이로하야금 이映畵는 半身不隨가되고마럿다 映畵『人生航路』를亡쳣다는事實로서 文藝峰을남으렐것이안이다 이映畵의 커다란 트리크로서撮影中에 文藝峰이 鄕峰映畵團으로옴겨가고말엇기때문에 後半에는 나올수가업섯다。藝術家가 한개의作品을 完成을意味하는것이다。藝術家文藝峰은 永遠히죽엇다 그가아모리 압날에燦爛한武步를 옴긴다하더라도 그는벌서 죽은 사람이되고말엇다

여기에서 朝鮮映畵를 關心하는 한사람으로볼때 文藝峰의今番事件은 무슨理由를 莫論하고 그로하야금 다시映畵에干與시킨다는것은 朝鮮映畵界의 羞恥가아닐수업다 (十五日부터優美館에서上映)

名少年俳優 짜키•쿠ー퍼ー
映畵에서引退

파라마운트社가 메트로를 드윈메이어ー로부터 빼내여다가『스키피이』를 主演시켜서 一躍最大의人氣俳優가되엇던 짜키•쿠ー퍼ー는 繼續하야 同社에서 『스ー키ー』를 主演한다음 다시 메트로社로 옴겨가서『나의武勇傳』『나의脫出記』等에 主演하고 或은 워ー레스 버아리ー와콤비로 『잠프』『寶島』『猛獸師의아들』等으로 팬의눈물을 자아내고잇섯스나 同君도 지금나히열다섯살이며 메社와의契約期限이다처왓스므로 이것을 契機로하야最後作『腕白時代』를남기고映畵界로부터引退하기로되엿다 (사진은 쿠ー퍼君)

二月二十、二十一兩日間(밤七時) 府民館大講堂에서

會費 二〇〇・一五〇・一〇〇

會員券發賣場所
鍾路方面—和信案內所 京城樂器鋪會 山口樂器鐘路支店
本町方面—三越 三中井 日本樂器會社 아사히樂器店 山口樂器店 鈴木樂器店 레ー도部

主催 崔承喜舞踊研究所
後援 朝鮮日報社

라디오

十七日 (水曜)

◇午後六時 兒童と先生の時間 一、乃木せんの國旗(讀本卷六第十三課) 二、お月樣のお話(讀本卷八第七課) 校洞公立普通學校
◇同六時(第一放送)(東)中江藤樹(二)(テキスト二七頁) 東京放送童話研究會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國語復習(一〇) 市川榮三
◇同七時三〇分 婦人講座 金顯實
◇同八時 遊山歌外 一、遊山歌 二、船遊歌 三、平壤歌 李眞紅 李飛鳳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靑春行進曲…翁素雲作曲 二、頌春詞…同 三、八靑春…同 四、浦口의落照…同 五、沙漠의旅人…同 六、봄노래…全壽麟作曲 李圭南 DK管絃團
◇同八時五五分 音律 銀山會相 玄琴 尹榮達 伽倻琴 閔成基 洋琴 吳懷模
◇同八時五〇分(東)舞臺劇

十八日 (木曜)

◇午後〇時五分 雜念外 一、雜念 二、六字백이 三、흥타령 四、개고리타령 趙蘭玉 趙翡玉
◇同一時一五分 副業講座(四) 叺의製造法 鄭求興
◇同六時 放送音樂會 바이올린 全鳳楚 獨唱 金學根 끼타ー 金斗徹 피아노 金浩俊 指揮 車在鎰 崇實學校音樂部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算術復習(九) 安廣奎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一)

奚琴 金德鎭 大笒 李斗七 觱篥 李宰珪 短簫 姜龍雲 杖鼓 金基豐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近世日本英傑
◇同六時二五分(城) 修養講座
◇同七時三〇分(城) 講演
◇同八時(東) 合唱
◇同八時二〇分(東) 新內

◇同八時 歌曲 一、界面첫재치 二、界面頭擧 三、弄 四、編 金雄珏 金蕙紅 金愛瓊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三〇分 獨唱 一、純眞한處女여ー歌劇미뇬中에서…토마作曲 二、퀘스타•오•첼라ー歌劇리골렛트中에서…베르듸作曲 三、네소래들리다…마살作曲 四、카리나•내사랑…伊太利民謠 五、農夫歌…朝鮮民謠 六、꿈조차속엿세라…安基永作曲 七、얼시구조쿠나…同 安基永 伴奏 金順順
◇同九時 古談 小婦의復讐 申淸居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城) 正調江差追分
◇同六時(釜) 童曲
◇同六時二五分(城) 婦人講座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大) 浪花節
◇同八時三五分(東) 歌澤
◇同八時五〇分(東) 舞臺劇

十九日 (金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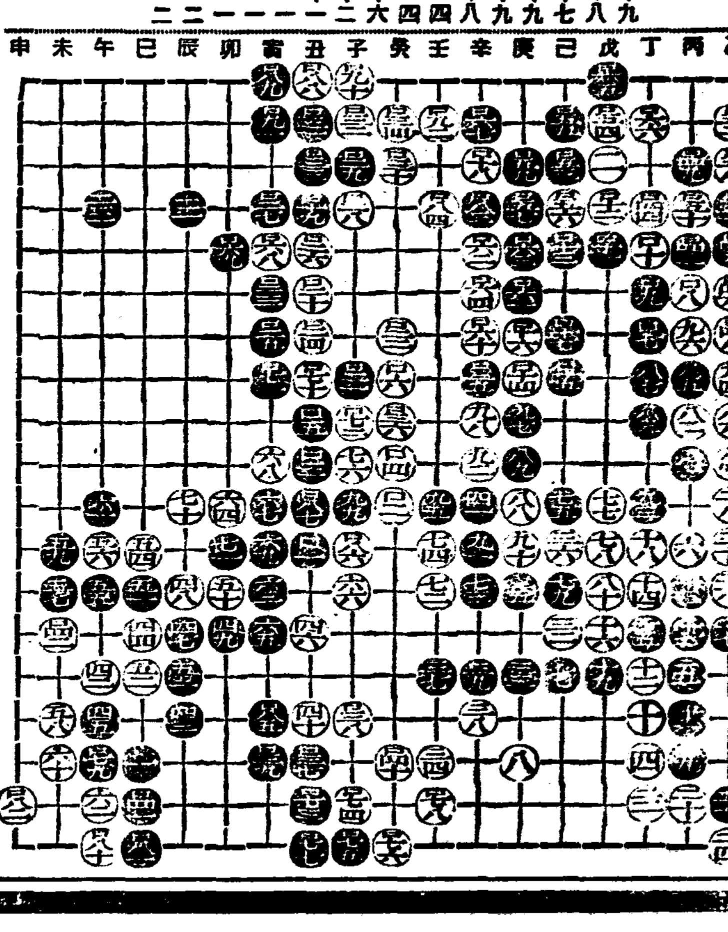
◇午後零時五分 映畵이야기 柳寅成
◇同一時一五分 副業講座(五) 叺의輸送其他 鄭求興
◇同六時 兒童と先生の時間 一、兒風(讀本卷八第十七課) 二、たしかな保證(同卷十第十一課) 齊洞公立普通學校
◇同六時(第一放送)(東) 里見八犬傳 AKコドモ會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國語復習(十一) 市川榮三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二) 金雄珏
◇同八時(平) 民謠 朱鴻順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水宮歌 金傳守 鼓手 池龍九
◇同九時(東) 管絃樂 一、交響曲 第十三番…G長調…하이든作曲 二、交響曲 핀란드頌歌 시베리우스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城) 落語
◇同六時(東) 名作이야기
◇同六時二五分(城) 講座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토ー키ー이야기 (純白한處女地)
◇同八時二五分(東) 謠曲
◇同九時(東) 管絃樂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2—

白 蔡極文
黑(先) 丁奎春

●一七七 丑의十九
○一七八 壬의十八
●一七九 午의十七
○一八〇 午의十九
●一八一 巳의十九
○一八二 申의十八
●一八三 辛의四
○一八四 壬의四
●一八五 寅의十六
○一八六 子의十二
●一八七 丑의十一
○一八八 丑의一
●一八九 寅의一
○一九〇 子의一
●一九一 寅의二
○一九二 壬의二



崔承喜新作舞踊公演會

渡欧告別

二月二十日(土) 二月二十一日(日) 毎夜七時開演

會場……京城 府民館

入場料 二圓 一圓五十錢 一圓

各地開演期日

二十四日……大[illegible]
二十五日……木浦
二十六日……麗水
二十七日……光州
二十八日……全州
三月一日……郡山
三月二日……鎭南浦
三月五日……平壤
三月六日……
三月七日……新義州

綜合ホルモン含有

クラブ美身クリーム

若返り栄養クリーム

호루몬으로살결이生生

구라부美身크림은 專賣特許綜合호루몬이 살결에서부러 榮養이되며 白色이조혼彈力잇는 살결을 만듬으로 大評判이다

살결을生生케•살거침에•白粉下에조타

力効强大하고 또한 無害……

齒磨의効力의 優秀는 殺菌劑의 如何에잇다고……말한다 이點은 配合의 殺菌劑를 明示한구라부齒磨는 責任잇는 良心的齒磨라고 할수잇다…… 朝夕으로 常用하시오

專賣特許의 强力殺菌劑クロール・カルバクロール及ヨードチモール가特히齒牙를파먹는 黴菌을迅速하게 死滅淸掃함으로 虫齒는未前에防止한다

齒牙를희고强하고입부게해

구라부齒磨는 健康上조라고 一流齒科先生들이다가티 實證을하는것은 勿論이다 또 美容의諸權威가 美容上見地에서非常히優秀한齒磨라고 推賞을 하여준다 이事實은 구라부齒磨를常用하면은 齒牙는淸淸히여지고어여쁘지、美麗한漂白해와가티 齒牙의琺瑯質을 害한다든지 齒牙를 아프지안케하는까닭이다

强한殺菌劑……
虫齒를막는다

專賣特許
クロール・カルバクロール及びヨードチモール配合

クラブ歯磨

煉 12セン 15セン 25セン 30セン 46セン
半煉 10セン

米穀檢查不統一은 南浦港에 致命傷

出廻杜絶로 精米工場廢休業

對策懇談會서 論難

【鎭南浦】 제작년곡물검사제(穀物檢査制)가실시되면서 조선각지를 통하여 어느곳을물론하고타격을 받지안는곳이 업는모양이나 오직곡물을생명으로하고잇는곡항 진남포에는 일층심한타격을맛게되여 대정미공장의 폐휴업이 속출하는등 실로 진남포항의 사활문제로되여 잇슴으로 지난십륙일 오후三시부터 진남포상공회의소(商工會議所)에서는 재남기자단(記者團)을 초청한후 곡물검사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시간토의한바 잇섯다고한다 이제 그간담회석상에서 론의된바를듯건대 곡물검사제자체로보면 조선쌀의 향상을 위하는 근본정신이 잇슴은사실이나 진남포곡물검사소의 처사는 전조선을통하여 다른지방에서볼수업는 엄격한검사를 한다는것이다 그는 생산지에서 한번 검사관에게 검사를맛고 진남포에 드러오는 곡물을 진남포검사원이 또다시 검사하여 생산지에서 일등품으로 되엿던것이 진남포에와서는 이등품으로 검사를 맛게되는 폐가 비일비재함으로 생산자들이 진남포로 곡물을마음노코 가저올수가 업게되여 결국연안항해도 해주(海州)나 혹인천(仁川)방면으로 가게된다는것이다 그럼으로보니 진남포는 곡물검사제 그자체보다는 검사원간에 검사방법이 불통일되여잇는관계로 진남포항에밋치는영향이 실로 막대하다는것이다 본문제에 대한이상문제를 철저히하게할만한인사가 잇다면 양도해주기로하엿다한다

記者團에서 蹶起

檢查眞狀을 調查

【鎭南浦】 보도한바와가티 상공회의소주최인 기자단과의 곡물검사에관한간담회석상에서 그러케전조선을통하야 어느지방에서나보기드믄 동독한검사방법을쓰고잇는진남포곡물검사소에 대하여는 진남포항의 사활문제이니만치 기자단에서는 적극적으로 검사소의모순된 검사제를 타매하는동시에 총독부당국에까지 반응이잇도록 상세한것을 조사발표하기로되엿다고하며 이문제에관하여 관계자며는은 다음과가티말한다

某銀行支店長 談

곡물검사제실시에 근본정신이 조선미를 향상식힘에잇다는것은 잘압니다 그러나 작년과가티 흉작인시기에도불구하고 검사규측그대로만 꼭실시한다는것은 너무나 가혹한처사라고하겟다 곡물검사는 검사의임을마튼 검사관에따라 다소는달성이잇스리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현재 진남포에잇는검사관들은그럼에대하여 도모지당해가업는이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운운

商工會議員某氏 談

곡물검사문제가 제일가혹한곳이 진남포라고 하겟습니다 첫재 다른지방에서 볼수업는 재검사인데 검사규측 제실행조로보면 생산지에서 한번검사바든후 물이 회착(廻着)되여서도 른법한 사고가 업는때는 다시검사하지 안케되여 잇슴에불구하고 진남포검사소에서는 엇지햇든 생산지에서검사밧고 드러오곡물은 전부다시검사를하게되니 연선에서 검사하는 검사원들도 안심하지못하고 일등품으로 인육치고 시프나 진남포에가서 이등품으로 되면 검사원의 면목이 업서질뿐더러 못해서 넉넉히 이등품으로한다는것이 사실이라고한다 이는진남포곡물검사소에 제일수석으로잇는모모 세사람은 조선각지에서 제일로 평판을 밧는이들이잇는관계라고하나 진남포항의 사활문제이니만치 시민대회까지라도열고 총독부에 진정이라도하여 적극적으로 이문제를 해결하지안흐면 안되리라고봅니다 운운

寶庫濟州島의 開發協議會

十六日에 協議會開幕

【光州】 제주도개발에 관하야는 루보한바어니와 총독부 송택(松澤)농무과장 서본(西本)수산과장등 십여명의 조사대일행이 풍랑으로 오지못해서 십오일에 개최하려든 협의회는 연기되엿섯는데 조사대일행은 겨우 십오일밤중에 광주에 도라와서 예정보담 하로동안느저 십륙일오전열한시부터 도회의실에서 총독부각과장, 기사등으로된 조사대일행과 본도간부 및 관계자등 사십오명의 대회합이 열리엿다。송본(松本)전남지사로부터 인사말이 끗나자 강(姜)산업부장이 제주도개발에대한 설명이 잇슨후 제일착으로 총독부 유정(油井)기사로부터 축산(畜產)에 관하야 의견을 말한다음 전작(畑作) 수산 동력(動力) 교통 산림등 광범위에 뻐처 토의하고 오후네시에 폐회하엿다 그러고 제주도개발예산은 확정되엿스나 아직 비밀에 부치고 발표치 아니하고잇다。

新築키로決定

咸興稅務監督局

【咸興】 함흥세무감독국(咸興稅務監督局)과 세무서(稅務署)는 금년삼월말부터 총공사비 구만칠천원을드려서 함흥부 일출정(日出町) 현재도청사압공지에 신축하기로결정하얏다

이층벽돌의 근대식건물로서 건평은사백오십평확한사작 이미총독부로부터 북선주식회사에 공사락찰이되얏다고하며 준공은십월말일이라고하는데 준공하는날이면 함흥시가에 한위관이리되라한다

三眞學校經營權

希望者에 讓渡

【[illegible]】 평남성천지동의전사립 삼진학교(私立三眞學校)는동회의전장로교회에서 경영하는 삼십년이라는 긴력사를 가진초등학교인데 지난사일오후 세시에그학교 위원되는동교회제직(諸職)들이모히여 학교동경비와내용충실문제를 장시간토의하다가 결국은

牛疫發生二萬頭

斃死만도三百餘頭

咸南道의畜牛禍!

【咸興】 함남도농무과의 통계를 보면 작년중 도내에서 발생한 우역(牛疫)은 이만륙천이백사십칠두로서 그중 치료하야 완치한것이 이만오천삼백삼십구두요 죽은것이 삼백륙십삼두의 다수에달한다 함남의축우두수는십륙만륙천두의다수로서 축산농수위를점하고잇는데 이와가티 매년우역(牛疫)발생이만허서 희생되는소가 불소한상태임으로 전재산을축우에 의탁하고잇는 일반농가에서는 우역예방에대한 철저한대책을요망하고잇다

鏡城稅務署新築

【鏡城】 귀성세무서는귀성군청의 일부를빌려목하청사로사용하고잇서 그불편과협착이 말할수업서 곤난하든중 작년가을부터청사신축 기성회가조직되여 그동안 각방면에며 실업계의 절대적후원으로 다액의기부가드러와 신축공작은 순조로진행중 금번최창학(崔昌學)씨도 거액의기부를하게되여 금춘에는 확실히 된다기로결정되엿는바 동위원회에서는목하반 준비를 착착진행중이다

林檎장수裝變한 元山强盜送局

【元山】 백주 사과장수로 변장하고 원산북정 원산중학교유 청수(淸水)씨집에 침입하야 그외처를 결박한후 금품을 강탈하라다가 이웃집사람에게 들켜서 목적을 달치못하고 다러난 강원도 이천군 웅탄면 룡금리(伊川郡熊灘面龍金里)에 본적을두고 원산해안통 오정목에와잇든 허복동(許福童)(七)은 그간원산서원에게 체포되여 이때 엄중한취조를 밧고 지난십륙일 일건서류와가치 원산검사국에 송치하얏다는데 그는 재작년부터 원산에 와서 밤이면 시내를 배회하다가 으슥한곳에서 일본내지인부녀자를 만나면 뒤를미룹처서 넘겨트리고 소지품을 강탈하는동시 추잡한짓을 하라다가 목적을달치못하고마튼사건이 이십여회에 달한다고한다

陳情代表의要求 道當局에서一蹴

一段認可된것取消할수업다고

載寧市場問題後聞

【海州】 재령시장이전문제로 재령시민대표 김정규(金晶奎)씨등 다섯명이 십오일상도하야 『시장이전인가의 파기와 아울러시장의 현상유지』를 도산업당국에진정하엿스며 시민백여명이 뒤로 달려와서 도청구내에 진을치고 당국으로부터 시원한답변이 업는때에는 도라가지안는다고 완강히 버티고잇다함은 작보한바와갓거니와 가튼날 오후여섯시쯤되여 해주서(海州署)의 제지로 그들대표이외의 시민은 재령으로 도라가고 대표만남아서 그이튼날인 십륙일에 정(鄭)지사를 회견하고 진정하려다 지사의거절로 그목을이루지못하고 재차리(李)참여관을 회견하고 재진정을하엿는데 도당국에서는 일단인가된것은 취소할수업다고 그들의진정을 일축하여 할수업시 비분한태도로 가튼날 오후세시경재령으로도라갓다

新對策을樹立 金晶奎氏談

불행사건에 대하야 진정원대표 김정규(金晶奎)씨는 비장한어조로 다음과가티 말한다。

『문제중에잇는 시장이전인가는 허위결의록을 근간으로하엿스므로 허위결의록인것이 판명된이상 당연 파기되는것이오를것입니다。그러나 당국에서는 이미 인가된것을 취소할수는업다고 완강히 거절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야 과거의 유물로 볼수잇는 관존민비(官尊民卑)사상이 아직 남어잇는것을 통절히 늣겻습니다。아모러나 재령도라가서 진정전말을 보고하는동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할 예정인데 무엇보다도 먼저 문제의 결의록이 허위인것을 긍정하야 진사까지 하고도 당국에 대하야는 이 허위인 사실을 부인하는 군과 면의 호리터분한 태도를 규탄할 생각입니다』운운

歐洲行의貨物

每日三千噸吞吐

處女港羅津殷盛記

【羅津】 대라진 건설의 공사가 날로 성취되여가는 라진항의면목은 차츰 정비되야가나 만주국산 대두(大豆)의 구주행 화물이 폭주하야 하로동안에 라진으로 쏘다지는 대두가 三千란 라진부두를 경유하게 산이처럼 쌓여서 하로평균 삼천도회물량치가 오고가고해서 처녀항 라진은 자못은성하여가고잇다한다

四百細窮民에 舊正마지同情

【平康】 평강군유면에서는 그날그날먹을것이업서 겨우연명해가는 궁민을 다소구제코저 구정초를기회로 비민동정금을모집하야 백삼호 궁민사백구십일인에게 좁쌀을분배하야주엇다는데 모집된동정금은 다음과갓다고한다

現金 百二十九圓七十五錢
白米 一斗七升五合
小米 九斗

定置網不振으로 當業者大打擊

【盈德】 경북영덕군은 해안지대인만큼 본군소산물로서는 해산물이년수백만원에달하야 지방경제를 좌우하는바 근년에이르러서는 청어잡이부진하여 파산자들도 속출하는바 본년은더욱부진되여 본군영덕어업조합구내에 수만원의 정치망설치외에는 아직까지 한마리의어획이업는자도만흔바 수만원식투자한 당업자들은 큰타격이라고한다

重大懸案陳情

女高普設置等

公職者會서協議

【淸州】 지난십오일 오후두시부터 청주공회당에서 청주공직자간담회를 개최하엿는데 청주의다년중대현안인 다음과가튼 삼대문제를 오는십팔일 남총독이내청하는 기회를타서 실현을진정하리라고한다

一、中學校及女子高普設立의件
一、[illegible]의件
一、[illegible]의件

第二普校誘致

南部側猛運動

【淸州】 청주군당국에서는 일반의요망에응하야 청주제이보교를 설치키로되엿는데 머지안허 개교케되리라는바 청주읍남부발전기성회에서는 현재보교의 배치되여잇는점으로라든지 또는남부발전상 남부측에 이보교를 설치할필요가잇다하야 유지리명구(李明求)씨외 십여인이 발기하야 맹활동을하고잇는데 실현될는지 제이보교유치문제에대하야 군당국을 방문하고 진정하기로 되엿다고한다

順天稅務官瀆職事件

不服코控訴

溝口署長만은服役

【光州】 광주세무감독국설치이래 최초의 독직사건으로 일반의주목을 끌고잇든 순천세무소장 구구청일(溝口淸一)(五)과 동세무소간세과장 대묵우길(大墨右吉)(四)동세무소속 리경권(李敬權)등의 려수(麗水)순천(順天)등지의 주조업자간에 부정사건이잇서 작년칠월에 순천경찰서의 활동을보게되야 이래 사국에송치되여 지난달십팔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잇섯다함은 기보하엿거니와 징역 일년륙개월을 바든 대묵(大墨)간세과장과 주조업자 리동표(李東杓)와 장재후(張再厚)는 전자의 죄명으로 일백원 후자의죄와및 벌금을 언도바닷든바 이를 불복코 십오일에 대구복심법원에 공소하엿다한다 그러고 구구세무소장과 리경권은 공소를포기하고 복역하기로하엿다한다

事情모르는雨雪

勞働者大困難

【寧越】 전조선에서 그례를보지못할만큼 참담을극한 작년의수해로 산간벽지인 녕월지방의민중은 일반적으로 생활상곤난을 면치못하는 반면에 재민의대다수는당지발전소공사장과 탄광(炭鑛)에서 품파리를하여 그날그날의 생활을 유지하야가든중 근일의 괴상한일기는 십여일전부터 가위매일같이 비(雨)와눈(雪)이 나리여 그들의 생활상 일대암영을 주어 크게 곤난한 현상이라고한다

地方人事

▲金頑熙氏(慶北道會議員)道會出席人事次 本報大邱支局來訪
▲文明琦氏 同上

釜山 新春擲柶大會

▲時日 二月二十一日(日)午後一時
▲場所 蓬萊閣四階홀
◇會費 金三圓(晚餐提供)
◇主催 朝鮮日報釜山支局

長篇小說

그의自叙傳 【55】

長白山人 作
熊超 畫

방랑의 길 (十二)

그는 다시 눈을 번적 뜨며,

『참 인생의 일이란 알수없어 내가 덕경 백림에 잇을 때요, 내가 유하는 방에 카이제르의 화상이 걸렷는데 말이오 나는 병상에 누어서 그 화상을 바라보며 이러케 말하엿소。 폐하 폐하는 지금 대제국의 황제시오 외신은 일개 외로운 망명객으로 잠시 폐하의 나라에 몸을 붓치어잇소。 그러나 폐하, 폐하의 조모가 나폴레온에게 어떠한 욕을 당하셧던가。 인생의 일은 알수없는것이니 혹시 폐하가 일개 망명객이 되어 외신의 나라에 몸을 의탁할지 어찌 아오? 폐하가 그 때에 외신의 손에 보호를 받을는지 어찌아오? ─ 이러케 외엇소』

하면서 웃엇다。 나도 웃엇다。

C는 카이제르삼세가 망명객이 되는것을 보지못하고 세상을 떠낫거니와 과연 카이제르 삼세는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 화란에 망명의 신세가 되고말앗다。 인사변천은 실로 무상한것이다。

나는 C의 집에서 유명한 S씨도 처음만낫다。 그는 수염도 나는대로 버려두어서 얼굴에게 치를 기색이 잇으나 그 눈이 빛나는것이라든지 그 목소리가 웅장한것이라든지 실로 영웅의 위풍이잇었다。 그야말로 K진위대 참령으로 부하의 부스럼을 입으로 빨아주고 잘못하는 부하가 잇으면 그것이 장교거나 병졸이거나 딱껴안고 빰을 비비며

『이 놈아 글세 이때가 어느때라고 정신을 못 차려?』

하고 울엇다는 그사람이다。 군대해산후에 그는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학교 이백여개를 세웟다는 이다。

『이놈아, 학교를 세울레나 안세울레나』

하고 부자를 붙들고 울때에 거절하는이가 없엇다는 사람이다。

그는 C를찻아와서도, C를껴안고

『아오 넘어 어쩌자고 아직도 앓고잇어!』

하고 울엇다。

나와 초면 인사를 하고는,

『대장부가 제 몸과 제 집을 잊지아니하면 못 쓰오』

하고 눈물을 흘렷다。 이로부터 오년후에 나는 그를 상해에서 다시 만나,

『동양 한쪽 한지에 죽자』

하고 그 수염많은 볼을 내 볼에 비비며 울던것을 긔억한다。 C를 일신이 도시 담과 지혜라 하면 S는 일신이 도시열정이오 용기엿다。

C가 몹시 편치아니하야서 누어서 쉬는 날이면 나는 A씨의 아들, 딸, 조카들이 이소녀 소녀들의 동무가 되어서 이야기도 해 주고 노래도 지어서 불러주고 또 앞 개천에서 얼음도 지쳣다。 이무인절도 같은 외딴 곳에서 자라나는 이 소녀들은 조선 사람인 나를 열성으로 환영하엿다。 나는 K학교에 두고 온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엇다。 밤에도 그들은 내 곁을 떠나려고 아니하엿다。 한 달 동안이나 잇는 동안에 그들과 나와는 서로 정이들엇다。 그들은 열 서너살된 누나를 머리로 올칠세되는 코흘리는 애들이엇다。

나는 치따로 가게되엇다。 내가 미국으로 갈 노자는 다시 미국에서 와야만하게된 사정을 나는 알앗다。 C씨의 말이, 미회 오백불이 두 번이나 온것을 다 상해로 보냇는데 상해에서 다 써버리고말앗다고한다。 나는 우선 치따에 가서 『정교보』라는 조선말 잡지 일을 보면서 미국서 회보 오기를 기다리기로 되엇다。 C씨는 나를 위해서 공을 희생할수없다고 해서 꼭 일개월만에 M여을 떠나기로 되엇다。

떠나는 작별을 하든 날 C씨는 시베리아의 사정과 치따에 잇는 동안에 주의할 조건을 여러가지로 말하엿다。 그중에 중요한것은 당을 조화시키도록 힘쓰라는것이엇다。 치따에서도 흥인단파와 파당을 삼가고 협의로 흥인지○파라 협회로사람이 여러이 죽엇다는 말도 하엿다。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합하면 흥하고 갈리면 망한다)

이라는 말을 그는 수없이하엿다。 그는 갑신정변이래로 조선사람의 모든 운동이 합하지 못하므로 글어진 것을 말하엿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앗다。 그는빙그레 웃엇으나 그의 표정은비창하엿다。 나는 참아 그를 떠나지못할것같이 느껴졋다。 장부눈물이 없음이 아니나 이별하기에 뿌리지아니하는것을생각하고, 나는 꾹참앗다。 이것이 C와의 최후의 결별이되엇다。

新人 金貞九君의 데뷰盤
港口의선술집
朴英鎬詩 朴是春作編曲
(一九六〇) 戀愛特急 李蘭影 金貞九
오케—레코—드

約束手形用紙紛失廣告
本人이 [illegible] 舒川郡 [illegible] 金宗坤氏 [illegible] 約束手形 [illegible] 昭和十二年二月九日 [illegible] 朴永泰 白

眼鏡의 仕入은 當店에
眼鏡 萬年筆 輸入卸
良品廉賣 商報進呈
Ⓚ金剛商會
仁川府京町一六七番地 振替京城二四六七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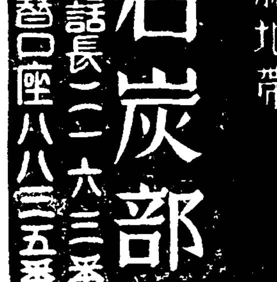
山羊乳
キング山羊牧場
瑞西直輸入系優良山羊養成 京城東小門外城北町
電話光化門(3)三〇五三番 振替口座京城三六〇番

電話 商品券、賣買、金融
朝報商會
柳商會, 明治町入口 電本3322

頭痛이잘낫는名藥
有名한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ノーシン 노ー신
●머리가 갈러지는것가티 몹시 아플때!!
●바늘로 쑤시는것가티 골치가 아플때!!
그리고 머리가 아프지안트래도 머리가무겁고 흐릿할때나
眠이 不足하거나 過度한讀書로睡
술을過飮하고 餘毒으로 氣分이조치못할때나
明快해집니다 이러케기묘하게 잘낫는것이노ー신의 가장 자랑할만한 特徵입니다 平時에 服用하신대도 決코 害롭지는안사오니 安心하시고 잡수시고 떠욱 家庭常備藥品으로 언제나 준비하여두실뿐아니라 이러한 良藥은 아모조록 우리同胞에게 널리宣傳하야서 頭痛으로 苦生하시는분이게시거든 꼭이 노ー신을服用하도록 가르처줍시다 노ー신은 어느곳을勿論하고 各處藥店에잇습니다 비슷한 藥品이만히나와잇사오니 사실때 商標帽子印잇는 노ー신에 잘注意하시시요
藥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廿八包入 一圓
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振替名古屋七五三番

돈버리에王覇
アイスケーキ는!!
機構完璧、優秀無比斯界의權威
國益冷凍機
國益冷凍機京城販賣所 京城府本町四丁目二八
(申込次第カタログ進呈) 師內据付臺數第一位
國益冷凍機會社朝鮮出張所 大邱府元町一丁目 電話長一一四二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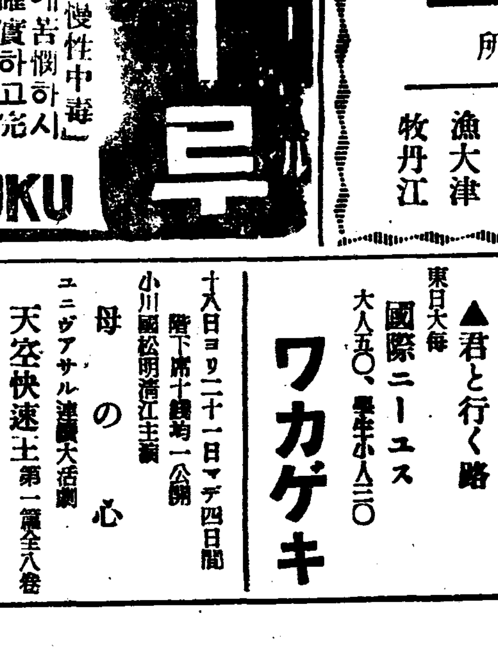
內科チストマ 토질 十二指腸虫 채독科專門
京城金弘琯內科醫院
總督府前 電話光三一三 振替京城五七貳貳

迅速正當한治療法
코 흘리고 메는대
코막히고……맥히고……惡臭……乾燥……냄새를모르는사람은 蓄膿症、肥厚性鼻炎、鼻茸、鼻加答兒等의惡性鼻病이發生하는證據로 人相이나빠지고、頭痛、頭重에괴로웁게되고、記憶力、思考力이減退되고、目、耳、胃腸에種種의餘病이생긴다 腦도身體도人相도나빠지는무서운鼻病을아는法、醫學上의正當한手當은冊子 鼻病解說 을보면누구나알수잇다 葉書로 新聞名을記入申込患者에게無代進呈
東京芝區南佐久間町二ノ二 確報堂藥品部

코가낫분兒孩의人相

모루히네 其他鹽類中毒에
福 모나ー루
一朝에治療를그릇처서—『모루히네』慢性中毒으로移行하야『모루히네』奪除困難에苦悶하시는분은곳福모나ー루療法에依하야確實하고完全히事業을하면서모루히네類를除去할수잇고速히萬健康體에回復함으로써安心하고應用하기를切望하는바입니다
(文獻贈呈)
皮下注射用 5 10 20 50管入
製造元 大阪市東區道修町 順天堂醫化學研究所
發賣元 田邊五兵衛商店
MONAL FUKU

王座を競ふ炭界の明星
龍堂炭 古乾原炭 鎭南浦發賣元
石炭産地の心臟地帶 淸津府
竹田石炭部
電話長二二六三番 振替口座八八三五番
遊仙炭 旭炭 特約代理店
出張所 京城 元山 咸興 淸津 吉州 漁大津 牧丹江

各種毛皮ナメシ加工
平壤府東大院里·平安製革社·電話一四二〇番
平壤局私書函八十七號 型錄進呈

●朝鮮의裁縫을機械化하야 發展하야겟다
▲七세의 小兒라도 能히 使用할수잇다
裁縫ミシン

○아모리서투른사람이라도 어린아해나 로인이나 극히간단하야 서툴느지안코 자미잇게 바느질할수잇는 朝鮮裁縫미싱이다 使用이簡易한것은 아이들을쓰는것과 흡로 밀기만하면 제절로 꾸매여지며 꾸맨자리가보기조흐며 明紬나 羅紗가튼것도 마음대로完全하게 꾸매여진다
大特賣 (替針附) (一臺代金)……三圓八十錢
製造元 名古屋市西區傳馬町三丁目 中島商事株式會社 電話本局七八番·四五二六番
【特約店大募集】

十六日ヨリ三日間 晝夜二回
獨シネアリアンツ特作 ウイリフオルスト監督 ポーラ・ネグリ ルートエヴェラー主演
▲マヅルカ
P・C・L超特作 成瀨巳喜男監督 大川平八郎、山縣直代、堤眞佐子主演
▲君と行く路
東日大每 國際ニュース
大人五〇、學生小人三〇
ワカゲキ

十八日ヨリ二十一日マデ四日間 階下席十錢均一公開
小川國松 明清江主演 母の心
ユニヴァサル連續大活劇 天空快速王 第一篇全八卷
續小唄紅三郞 小川雪子主演 霧隱忍術旅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〇〇 第二回 三、〇〇 第三回 六、五〇
永樂町 本二〇一四 中央館

經濟解說
財政膨脹의趨勢와 結城財政展望 (三)
朴用來

結城藏相은 馬場案의 修正에 伴하야 問題만든 馬場稅制改革案에 對하야도 修正을 加하게되엇다。 그러나 議會關係로 全面的 修正案立案에는 時日이 不許하므로 昭和十二年度一年限의 暫定的 臨時增稅案을 세우게되엿다。 그는馬場案을 解消하고 一旦 現行稅制로 還元하야 單只 그稅率을 引上하는同時에 例外的으로 新稅를 創設하는것인데 이도 去十二日 閣議에서 決定發表를보앗다。 이에 依하면 馬場稅制改革案의 增稅額이 關稅改正을 加하던 約四億五千萬圓에 達하든것을 約一億六千萬圓 減額하야 約二億九千萬圓의 增稅로하얏다。 이增稅內容에 對하야서도 이미 本欄을 通하야 그大綱이 發表되엇스므로 重複한 數字를 一一히 列擧함을 避하거니와 大體에잇서 內國稅約二億六千八百萬圓 關稅約一千八百萬圓 輸出統制稅約四百萬圓으로 合計 前記約二億九千萬圓으로되는것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單只 馬場稅制改革案과 結城增稅案과의 主要한 相違點이나 드려參考에 供하기로한다。

▲所得稅
◇第一種所得稅—超過所得에 對한 增徵을 中止한것。 國債利子에 對하야 二割五分을 控除하고 綜合課稅하기로 되엇든것을 七割을 控除하기로된것。 同族會社의 加算稅에 對하야 七割을 增徵하기로 되엇든것을 五割로 引下한것。

◇第二種所得稅—原則的으로 源泉課稅를 廢止하고 綜合課稅로하되 內國債政策上 當分間 國債 預金及貯金의 利子에 對하야서는 納稅義務者의 申請이 잇슨境遇에 依하야 源泉課稅로 되엇든것을 現制度대로 모다 源泉課稅로 그냥두기로되엇는바 源泉課稅의 境遇 個人所有의 國債利子百分四이든것을 百分의二로 그他 銀行預金利子及 貸附信託利益百分의七 産業組合貯金及 銀行貯蓄預金百分의六이든것을 百分의七·五로 稅率을 引上하야 課稅하기로된것。

◇第三種所得稅—免稅點을 千圓으로 引下하기로 되엇든것을 現行의 百二十圓대로두고 稅率은 平均 四割强引上하기로 되엇든것을 五割程度로 引上한것 現行의配當所得四割控除를 廢止하기로 되엇든것을 二割控除로하기로된것。

▲營業收益稅—個人에잇서서 免稅點을 六百圓으로 引上하기로 되엇든것을 現行의 四百圓대로 두고 稅率도 純益千圓以下에對하야서는 百分의二로 引下하고 三千圓以下에對하야서는 그대로두며 三千圓을 超過하는것에對하야서는 百分의三으로 引上하기로 되엇든것을 모다 現行의 千圓以下 百分의二·二 千圓超過 百分의 二·六대로 두기로된것

▲資本利子稅—國債利子는 現行의 百分의二대로두고 地方債利子는 現行의 百分의二를 百分의四로 그他의것은 現行의 百分의二를 百分의五로 稅率을 引上하기로 되엇든것을 一率로 十割을 增徵하기로된것。 産業組合預金及 銀行貯蓄預金에對하야 二千圓을 超過하는것에 對하야 百分의四를 課稅하기로 되엇든것은 現行대로 免稅하기로 된것。 外國債에 對하야 國債는 稅引利廻百分二厘、社債、地方債는 稅引利廻百分七에 相當하는部分 以上의것은 全部 課稅하기로 되엇든것을 利子額中 年利五分에 相當하는部分은 免稅로하고 그以上의 部分에 對하야 課稅하기로된것

▲相續稅—全體를 通하야 十割程度 增徵하기로 되엇든것을 二割乃至 十割로 引下하고 家督相續의境遇 家族控除를 設하기로 되엇든것을 中止한것

▲財產稅—創設하기로 되엇든 財產稅中 個人財產稅는 中止하고 法人資本稅만을 設하되 그稅率은 千分의一、五이든것을 千分의一로 引下한것

▲鑛業稅—採掘鑛區稅는 現行의 每千坪 六十錢을 八十錢으로 引上하기로되엇든것을 現行대로두고 鑛產稅는 千分의六으로 引上하기로되엇든것은 그대로하나 金鑛及銀鑛에 對하야 千分의十三의 特例를 設하기로된것。

▲臨時利得稅—馬場案에잇서서는 全然 손을 대지안햇든것을 現行의 法人百分의十을 百分의十五로 個人百分의八을 百分의十으로 稅率을 引上한것。

▲酒稅—庫出制度로하기로되엇든것을 中止하야 現行의 法定納期制度대로두고 稅率은 酒類는 平均二割引上하기로되엇든것을 一割程度로 引下하고 麥酒도 六割引上하기로되엇든것을 四割로 引下하며 酒精及酒精含有飲料는 專賣制度를 採用하기로되엇든것을 中止하고 現行稅率을 二割程度引上함에 끗친것。

▲有價證券移轉稅—證券業者取得에잇서서는 國債萬分의二 그他萬分의四로되엇든것을 各히 萬分의一、萬分의二로 引下하고 實物市場은 國債萬分의三、五를 萬分의二로 그他萬分의七을 萬分의四로 引下하며 一般取得에잇서서도 國債萬分의五를 萬分의四로 그他萬分의十을 萬分의八로 引下한것。

▲取引所稅—取引所取引稅中 株式短期取引은 萬分의三을 萬分의二〇七로 引下하고 長期取引은 萬分의三、五를 萬分의四、五로 引上한것。

▲砂糖消費稅—平均二割增徵하기로되엇든것을 一割五分으로 引下한것。

▲通行稅—馬場案대로

▲其他—印紙稅、登錄稅、織物消費稅、地稅는 모다 現行대로 두고 地方稅制改革도 中止하야 現行대로두기로된것。

—(續)—

今日財界 (十七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三等米 一石	[illegible]	不變
京城一等白米 百키로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二斤俵 三等	[illegible]	[illegible]
고무FAQ	[illegible]	[illegible]

◆株: 朝新、東新、日產 [illegible]

◆商品: 大阪綿絲、大阪棉花、大阪人絹、大阪砂糖 [illegible]

大資本進路轉向 朝鮮서 北中으로
東拓은對朝鮮內事業消極化 紡績工場新設擴張도一段落

그러케 宏壯하던 大資本의 朝鮮進出도 一段落이모양이다

▲朝鮮의 大地主이오 大事業網을 편 東拓이 安川 新總裁 就任으로 朝鮮、滿洲에는 消極的이고 南進政策과 中國의投資로 轉向을 傳하며

▲近年 紡績工場의 朝鮮內新設 擴張은 驚異的이더니 이것도 大日本紡의 三工場着手를 最後로 北中進出을 協約하얏다 이것저것 앞으로는 北中으로 行進曲을 울릴 모양이라 한다

東拓
東拓은 安川新總裁의 就任에 依하야 積極經營時代를 迎하얏스나 最近의 總裁方針闡明에際하야 朝鮮內의 事業經營을 極觀하는傾向이 잇슴이보인다한다 安川總裁의 新方針은 南進政策과中國에의 投資에 今後의積極發展을 期할 意向인것가라아 이미 相當한 大投資가 잇는朝鮮滿洲關係에는 極히消極的인意向이傳한다

紡績業
大日本紡績常務取締役 今村奇男氏는 十六日入京 同社朝鮮工場着手의 視察及折衝을 하기로되엇는데 如左히말한다

當社의 工場進出은 水原清津永登浦의 三個所로 水原은六萬坪、清津三十萬坪、永登浦二萬坪의 敷地를所有하고먼저 着手할것은 水原綿絲紡績과 清津서人絹製造인바 本年四月부터 着工하겟다、水原은紡錘四萬二千錘機臺一千臺、清津의人絹은 第一期日產二十噸으로 六十噸까지 擴張할생각이다 永登浦는 人絹綿布雙方의 加工工場으로하겟는데 未決定이다 總投資는 五千萬圓을넘을것이다

鐘紡과東紡、當社의進出로 朝鮮의 紡績能力은 一大飛躍이되어 當社의進出로 一段落이되겟다 紡績聯合會에서의 紳士協約으로 朝鮮의 工場進出은 日本內地 朝鮮產業對立을 未然에防止키爲하야 新設대신에 日本內地工場의 紡錘轉換을 行하고 當社에서는 스프를、파이버等으로 轉向하고 잇다 從하야 今後는 北中에進出할것이라생각되다

國際的棉業에對하야 가장注目할것은 中國의 斯業의將來이다 原料棉花의 增產에잇서서도 洋洋한 將來를가지고 그需要에잇서서도 世界의 市場에 動하는 棉花는 五十億偶인바 中國需要開發策如何로는 그過半을 一國에서 需要한다 上海 青島는各其飽和點에잇스므로 今後注目되는것은 濟南과天津의 兩地方이다 北中進出이 棉業界에서 注目되는것은 이點이다

嚴島神前市勢
인풀레氣分橫溢、盛況

【宮島發電商通】安藝의宮島=古典的神事、嚴島神社年越祭는 恒例에依하야 舊正六日에當한 十六日午後六時부터 獻燈이美麗한同神社에서 盛大히擧行되엇다。 非常時議會의 再會와大豫算의編成을圍繞한 前途의인풀레氣分이橫溢하야 『相場師』等이 東京、京阪神은勿論멀리 朝鮮滿洲로부터 모여들어와서 팔엇다 사다의連呼로好景氣來를 생각케한바 結局如左한賣買를 示하얏다

	高價	低價	平均
夏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豆粕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棟粕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鐘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勞働者一日平均五萬人
工事額五千五百萬圓
◇…土建協會會員請負現在

京城土木建築業協會員의 一月末現在의 所持工事額은 會員五十名中四十三名分 五千五百八十六萬九千二百二十圓으로 其中土木工事三千八百八十三萬二千五十二圓 建築工事千七百三萬七千百六十圓이며 지금까지統計에依하면 이工事에使用할勞働者는 一日平均五萬人에達한다

朝銀金買入
九分一로激減
買入價引上豫想으로

產金買上價引上在近의 觀測은 市中 金市勢의 昻騰을 招致하야朝鮮銀行의 金地金買入은 客臘來激減하야 本年一月中의 買入量은 數量百四十キ로그람 金額四十九萬圓에 不過하고 昨年의金價引上當時의 一千二百七十六キ로에 比하야 九分一로 減하얏스나 朝鮮銀行의 昨年中의 朝鮮內地金銀의 買上은 總計五千百六十五萬圓인바 昨年金買上價引上以來의 累月買入量은 如左하다(單位킬로그람)

六月	一、二七六	十月	二九六
七月	六六四	十一月	三九〇
八月	四〇四	十二月	三二四
九月	八五五	今年一月	一四〇

朝鮮電力工事 各部門進捗
八月부터送電開始

朝鮮電力의 諸般準備는 着着進捗되는中인데 各部門의 工事進捗狀況은 如左하다

▲電力工事=風水害로 一時停頓狀態에 陷하얏섯스나 最近은 順調로進捗되어 發電所의建設을終了하고 目下發電機裝置中으로 四月頃에는 完成할豫定이다 一方送電線은 寧越尙州間의 大田江界線及尙州大邱線이 竣工하고 八月一日부터 送電을開始할豫定인바 第一期의發電能力은 二萬五千키로 發電機一臺 五萬키로이다

▲漢湖津築港=政府豫算未定으로 着工치아니하얏지만 設計는 이미되어 大體 五月頃부터 着工 政府는 防波堤 會社에서 岸壁、埋築浚渫工事를着行키로되엇다

▲肥料工場(石灰窒素工場)=最初의 計畫을 變更하고 興南三陟間의 北三面에 建設키로되어 이미用地의 買收를 終了하고 目下設計中인데 五、六月頃着工하고

▲鐵道工事=風水害로 目下二、三工區만 着工하고잇는데一、四兩工區의 設計變更을 行하고目下實測中으로 五月부터着工豫定이라한다

朝鮮鐵道增收

朝鮮鐵道에서는 本月末決算하고 四月二十日定時總會를 開할터인데 本期는 米穀其他出廻不振으로 豫想外로 運輸收入이 減少하얏스나 豫算에 比하야 利益은 十萬圓增收라한다

製絲減釜問題
日本內地側讓步

製絲減釜問題에 關聯하야 朝鮮內製絲界의 日本內地本社工場과 朝鮮內本社工場과의 差別待遇는 朝鮮內統制上의 重大問題로서 一月中旬來 製絲三團體代表가 渡東하야 中央과折衝하얏는데 朝鮮側의 主張을日本內地側이 諒解키로 되엇다 即 日本內地本店工場의 積立金도 朝鮮內本店工場과 同樣이것을積立後 朝鮮에還元하기로 日本內地側도 諒解한것으로 이條件으로

用語解說
푸레미엄

『푸레미엄』이라는것은 英語의(Premium)을 그대로 使用한말인데 이語句는 大體세가지 方面으로 使用되고잇다 하나는 勞働者가 그作業成績이 조흔때에 規定賃金以外로 부치로 報酬를주는일이잇다。 이報酬를 『푸레미엄』이라고하며 또하나는 金貨의 賣買價値가 이에 相當하는 紙幣보다 크때 이超過價値를 『푸레미엄』이라하며 또하나는 우리가 一般으로 널리 使用하는 市勢用語인데 株式時勢가 拂込金以上으로 올라갈때 그拂込金以上의 金額을『푸레미엄』이라고 하고 또는 新株發行에 際하야 額面以上의 價格으로 株를 募集할때 그額面以上의 金額을 푸레미엄이라고하는것으로 이株를 푸레미엄附라고 말한다。

寸鐵

○製絲減釜는 『個別的으로 各工場에 制限치안코 이制限資金으로서 朝鮮製絲業의 向上發展에 充當한다』고決定하얏다

○製權一重不統一로 鎭南浦港은 致命傷을바더 야단법석이라고。

○法의 精神은 그러치안흔데 ……運用이 잘못되면 이러케。

○水產輸出躍進、平果海外地盤確立等。

○明朗한 소식도 잇스니 多幸한일。

○朝銀에서는 物價指數算出基準을 改正한다고。

○이것이 무슨 소리죠 아오 장차 高物價時代에 備키爲한것……

經濟界消息

○京城商議商部會=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十八日 午後二時부터 理財部會及 工業部會를開催하고 左記件을 附議한다고
一、工業金融에關한件

○朝運京城支部會=朝運京城支部會從業員講習會 朝運會京城支部會에서는 系店의 業務改善과 連絡統一의 强化를 圖키爲하야 來十九、二十日의 兩日間 朝運京城支店會議室에서 從業員講習會를 開催키로 되엿다고

株式 反落이나 底堅
今日의市勢 【十七日】

前場反弛
纖維株의買氣再擴大로 이에支援되어 堅實한步調를보이게된 主力株는 今朝寄付에도 東新百五十三圓九十錢 大新九十三圓五十錢 鐘新二百三十六圓八十錢으로 强含商狀이엇는데 米國株式의反弛에加하야 議會의空氣는 依然政黨對軍部의 對立이 緩和되지안코 一步를 讓步하면 다시어떤波瀾을惹起할는지도알수업스므로 警戒도 亦是嚴重하야 高價는不續하고 諸株一齊反弛商狀이되어東新一圓九十錢 大新一圓七十錢鐘新四圓九十錢으로 前場을마치엇다

後場底堅
後場은 東新百五十一圓八十錢에 寄付한後 다시二圓高로 오르고 鐘新二百三十六圓四十錢 朝新三十六圓六十錢等으로 少堅調에 保合이엇다

高價依然警戒

議會의再開와 解散危機는解消된것가튼空氣와 結城藏相의 財政 또는稅制修正等이 好感되어 諸株가一齊反撥氣勢로 轉하야 纖維株의買氣는 濃烈을極하고 主力株또한 이에支持되어 去般의低價에서 六圓餘의 反撥을보이게되엇는데 平穩無事를 豫想한 議會도 政黨對軍部의 對立空氣는 依然險惡하야 如何한局面을 展開할는지도 알수업스며 結城財政에對하야 無條件歡迎보다도全面的批判을 하려는 態度이므로再次 警戒가되어 今後의反弛商狀을 보이게되는것이다。 議會의 空氣는 暫時推移를 觀望할수밧게업거니와 財界의 基調는 依然不變일뿐 아니라 오히려 [illegible]에 向上過程을 밟고잇스므로 目前의 小波瀾은 잇슬지모르되 大勢는 亦是 樂觀일것이라는것이 市場一般의 觀測인 모양이다

纖維株中心高

纖維株의 買氣는 依然濃厚하야 足利紡績의 二圓二高、旭紡績의 一圓六高를筆頭로 大東紡의一圓二高、同新一圓高、東洋모스의 三圓五高、同新二圓高等은 注目되며 日本紡績도 一圓七高로 頑强하며 東邦人造의九高 人造羊毛의六高로부터 東京人絹의 二圓二高 帝國의六高同新의八高에至하기까지 모다物色買氣의擴散을 暗示하고잇다。 工業株는 日本 曹達新이 三圓五

東株業績好調

年末年初의 諸株績發高로 東株는 今期에 벗다는 二新記錄을 내엇스니 一月十一日의 實物一四九一六八株와 同十二日의 株式總賣買高一、二七〇、二九八株가 그것이다。 이러하야 一月上旬까지의 收入累計는 百六十萬圓을突破하며 一日平均三萬圓을超過하야 前期에比해 五割의增收에 當하며 만약이대로나간다면 結局百五十萬圓의增收로 決算에餘裕를 두고도 一割配當은 可能하리라고한다

實物前場取引

▲日本曹達平 [illegible] ▲日滿아루미 [illegible] ▲九州曹達 [illegible] ▲足利紡績 [illegible] ▲東滿曹平 [illegible] ▲第二대절 [illegible] ▲自動車工業 [illegible] ▲鑛業新 [illegible] ▲豊永港新 [illegible] ▲龍山工作所 [illegible] ▲全羅鑛業新 [illegible] ▲日本曹達新 [illegible] (取引高 一二〇枚)

國債 少高 財政樂觀

▲東京【東京電話 同盟】結城財政樂觀에서 押目買人氣인때에 議會도 無事平穩이 豫想되므로 金融資本側의 買物이出現하야 一回四分十錢高를 爲始하야 一回四分 三回五分도 十五錢上하며 佛貨도 少高이며 諸債도 實物도 引合이 良好하야 堅調를 告하얏다 實物도 長期高를 反映하야 寶物으로 部分的으로 少高狀을 보엿스나 米貨債는 過般急激이賣進되어 反動도잇서 六分半二圓八十錢 五分半四圓五十錢安으로 落하엇다

▲甲五分利 [illegible] ▲四回分 [illegible] ▲二回四分 [illegible] ▲佛貨 [illegible]

▲大阪 ▲甲五分利 [illegible] ▲第三五分 [illegible] ▲四回分 [illegible] ▲二回四分 [illegible] ▲米貨六分半 [illegible] ▲滿洲公債 [illegible]

阪軟仁硬으로 阪仁又復縮鞘

昨今의 各地商勢는 議會進捗의 觀望狀態로 保勢圈內를 脫치못하고 一張一弛하는光景이나 此邊小揚圈에서 阪地市勢는稍히 軟弱하고 當地는稍히 强硬하야 阪仁의鞘가 百八十丁으로 又復縮少하엿다 昨前場初에는 取引店을 根據로한 優勢한買物이 續出하엿스나 此買物이 一巡한後에는 群衆의買物이 또한 續出하야 更히縮鞘함에至하엿다 그러데 朝鮮은凶作인만치 持米側의 賣惜方針이 依然鞏固하야 容易히賣放치 아니한즉 當地의 頑强을 可期할수잇스며 日本內地는 豐作인만치 春臟前까지 賣惜하든 農家가春暖期의到米를 氣로하야 賣急하는모양으로軟勢를 呈하는光景이다 그러나 日本內地가 反落을告하는때는當地亦追隨하지 안흘수 업슬것이므로 買固執하다고도謂키 難하다

期米 浮動裡에 軟調

前場低落
昨後場放溢三十一圓九十八錢止와 共히三十圓十五錢에 寄를止한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節三十二圓〇二錢인四丁反高를 據하고三十圓十七錢인 二丁高로寄를 給한後阪地二三四節 三十二圓丁으로漸弛하야 三十一圓九十六錢에 止場함을 伴하야 二三節二十錢同價 後續弛하야 結局十一錢에止場하다

後場軟調
後場은 三十圓〇七錢인 四丁低로 始場한後 二節〇八錢 三節〇四錢으로續弛하고 四五節二十九圓九十九錢 同價로 軟調이엇다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中限	先限
◆賣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物價大勢一考
低落은一時的

天井不知의 形勢로 騰貴하든物價大勢는 廣田內閣의總辭職을 하야 宇垣內閣의流產又는 林內閣의出現에 至하는동안에 [illegible] 結城藏相의 財政 [illegible] 告함에 至하엿다 그러나 冷靜히 物價大勢를 一考하면 今日의 國際情勢로보아서 國防의 充實은 不可避의問題로 二億七千萬圓程度의 豫算削減을 한다 지라도 三億圓의增收는 [illegible] 形勢이며 딸아서 國民生活의安定을 標榜하나 그러나 實際의事情이 그러할가함이 疑問이며 又는 世界的物價가 一齊히 昻騰하는 此際인만치 日本物價의 單獨低落을 期할수 업슬것도 事實이다 그럼으로 此趨勢대로한 農家의 態度는 米價의將來도 物價와 併行하리라는 推測으로 賣惜方針을 又一層 鞏固히하는 모양인데 此邊의 低落은 一時的現象으로 結局은 『인플레景氣』의 反撥을 告하고야말 거라는 商談이만흔바 果如何?

株 市場觀測 米

株……株界大勢로보아 東新도天井을 친것이아닌것은 識論인만큼 投擢、買觀가相當하다 ▲이래서는 政策的意想外의 新規好材料에 援치안는限 이대로活躍되리라고는 바라기어려울뜻 ▲기다려도 잘올니지안허 嫌氣가 나온때가 即新規買出動할때가아닐가?

米……昨前場初付의市勢는阪仁二百丁의開鞘를示하더니今朝에는 百八十丁으로依然縮少 ▲朝鮮米는 凶作인만큼 强하고 日本內地米는 豐作인만큼 弱하다 ▲그러나 天下米價를支配하는 堂島米價가瓦落하는때는 當地亦그影響을受하고야말모양 ▲그러고 農家에서도 春要期가 到米하는此際인만치 結局賣急하기가 十常八九일즉 賣方針은 固執할수업는것을두고보자구나

正米 鈍重 閑散場面

京城閑散 定期鈍狀으로人氣不振하야 休商同樣의 閑散商狀이다 ◎三等三〇、一〇 四等二九、八〇 一等白米三三、〇〇

仁川傍觀 產地는 低價에는 頑强히 不賣하는 一方買方의 總傍觀으로 人氣는 極端한閑散商狀을 示하고잇다 ◎三等三〇、一〇 四等二九、八〇 一等白米 [illegible]

釜山不動 新規實物薄인데 市況은 全然不振으로 當用小口買가 散見될뿐이어서 取引高도겨우 九百四十六叺이엇다 ◎三等三〇、五〇 四等三〇、二〇 一等白米 [illegible]

大邱不變 定期의 小浮動保合과 實行停頓狀態로 市況은 休業狀態의 閑散味를 未脫하고잇다 ◎三等三〇、一〇 四等二九、七〇 一等白米 [illegible]

群山閑散 日本內地入荷가 [illegible] 人氣는冷靜하나 [illegible] 實物不足으로底堅이엇다 ◎三等三〇、[illegible] 一等白米 [illegible]

木浦小高 一般으로 氣迷人氣가 濃厚하나 產地出廻減과 [illegible] 氣配는 小高唱이엇다 ◎三等三〇、[illegible] 一等白米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一般의 氣迷가 濃厚하야 [illegible] 閑散景況을 示하고잇다 [illegible]
▲賣方 東京側 中東側 地場 [illegible]
▲買方 地方側 [illegible]

海外經濟 (十六日)
銀行券 (十六日)
手形交換·金利
對外爲替
金銀價
正米
正租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本絹交織人絹
滿洲商況
鱷油粕·蔘粉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 ◆短期主要株取組 / ◆大阪短期 / ◆大阪短期取組 / ◆東京短期 / ◆東京短期取組 / ◆東京現株 / ◆朝取短期賣買高 / ◆豫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 ◆大阪長期 / ◆大阪短期取組 / ◆大邱期米 / ◆釜山期米 / ◆群山期米 / ◆木浦期米 / ◆朝取期米賣買高 / ◆大阪期米 / ◆大阪期米取組 / ◆東京期米 /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綿糸 / 棉花 / 人絹 / 生糸 / 砂糖

◆大阪綿糸 / ◆大阪棉花 / ◆各地人絹 / ◆大阪人絹現物 / ◆橫濱生糸 / ◆大阪砂糖 / ◆東京砂糖

[illegible]

金 白 德 銀·金
入買價高 力德城京 ②局本話電 3939 1572
代金引換販賣酬應 町治明府城京 振替京城 234

趙後鏡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期米

御來恒取引店
仁川 期米 株

米 仁川 株 東城 益 [illegible]